

"동아일보가 사이비 언론"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1일 월요일 제3226호 www.metroseoul.co.kr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 사과

미필자 전성시대



대한민국 정·재계 헤게모니 병역 면제자들 손아귀로

삼성, 현대차 등 재벌의 3세 경영승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 총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재벌 3세들의 병역 미필은 향후 기업 경영 리더십 형성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 상당수도 군 미필자들이어서 정·재계 지도층 인사들의 병역 기피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 승마 국가대표 출신 이재용 갑자기 "허리 통증"

31일 병무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5대 그룹 중 3세 경영 승계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990년 6월 징병검사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으나 다음해 11월엔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수핵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을 뒤에서 지탱하고 있는 인대 조직이 파열돼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이 부회장은 승마 국가대표 출신이다. 이 부회장은 1989년 한국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승마 선수권대회에서 장애물 단체 종목에 출전해 은메달을 땄다. 그 해 11월 제19회 전국학생승마선수권 대회에서 마장마술 경기에서 이 부회장은 서울대 소속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1990년 10월 이 부회장은 삼성승마단 소속으로 국제승마연맹(FEI) 삼성국제장애물·마장마술대회 마장마술 경기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해 당사자와 삼성그룹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06년 방영된 KBS 의 시사기획 '쌈'에서 삼성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차례 낙마 사고로 허리를 다쳤고 유학 준비를 하던 중 통증이 심해졌다"고 말한 적이 있다.

범삼성가 제벌3세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신검을 앞두고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찌는 바람에 과체중으로 군면제 처분을 받았다.

2대 재벌인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을 것이 유력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 1989년 담낭절제 수술 전력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담낭(쓸개)을 떼어내도 육류섭취 등만 조심하면 일상생활에 그다지 큰 지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의들의 소견이다. 군 복무를 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는 담낭절제 수술이 병역면제 사유에서 빠진 상태다.

롯데가 3세 후계자로 유력한 신동빈 회장의 장남 유열씨(29)는 일본 국적이라서 병역 의무 자체가 없다. 다만 지금이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여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대통령 궐위시 군통수권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도 '신의 아들'

정계를 보면 '1인지하 만인지상' 자리를 눈앞에 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군 미필자다.

황 후보자를 포함해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29명 중 5명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신의 아들'들이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이라는 피부병으로 병역의 무에서 벗어났다. 부총리급인 황찬현 감사원장은 근시로 병역 의무가 면제됐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무종(폐결핵 증상)판정을 받고 병역을 비껴갔다.

장관급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폐결핵(활동성 미정)으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골수염 후유증으로 각각 병역을 면제 받았다.

/송정훈기자 sjh@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사실확인 없이 재벌 대변, 동아일보가 사이비”

동아일보가 지난 30일자 지면과 온라인 기사를 통해 사실상 메트로신문을 지목해 '사이비 언론'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광고요청 거부하면 오너 사진 싣고 보복성 기사로 협박'이라는 제목아래 “사이비 언론 횡포에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이를 막으려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

메트로신문측은 31일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하나의 사례를 글머리에 예시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풀어나갔는데, 사례로 든 언론사 사명을 비록 영어 이니셜로 표기했지만 언론계와 관련 업계 등에서는 누구나 그 당사자가 메트로신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기사의 글머리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내 대기업인 A사는 최근 군소 매체인 Z사의 보도로 곤욕을 치렀다. Z사는 'A사가 어민들로부터 납품가를 후려쳐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 회사 오너의 얼굴과 함께 싣는가 하면, 오너의 병역면제에 대해 '똥보라서 못 갔어요'라는 식의 인격비하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대기업의 홍보 담당자는 'Z사가 A사에 지속적으로 광고 등을 요청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보복성 기사를 쓴 것'이라며 '전면에 오너 사진을 노출하고 선정적 제목을 달면서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사이비 언론의 횡포에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메트로신문 관계자는 “동아일보가 위 글에서 언급한 메트로신문 기사는 두꼭지인데, 둘다 신세계 그룹과 관련된 사안으로 해당 기사는 생활유통부에서 작성한 것이다. 기사를 작성한 생활유통부 기자는 물론이고 편집국 간부 누구도 동아일보 기자로부터 확인 전화 등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메트로신문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예시한 기사 중 첫번째 것은 지난 4월 1일자로 보도한 '이마트 참돔 어민돕기? 납품가 후려친 두배 폭리장사, 어려움 겪는 '참돔' 양식어가 돕겠다더니, 생산원가 못미치는 헐값에 구입해 판매' 라는 제목의 기사다.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A사가 어민들로부터 납품가를 후려쳐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 회사 오너의 얼굴과 함께 실었다”고 비난했다.

또 동아일보가 "똥보라서 못갔어요라는 식의 인격비하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 기사는 메트로가 4월 9일 보도한 '[세습재벌 문제없나-병역:신세계그룹] 운동마니아 정용진 부회장 '과체중'으로 군면제' 라는 제목의 기사를 표적으로 한 것이다.

메트로신문은 이들 두 기사를 오프라인 신문 1면에 당일 자에 게재하면서 메인 제목을 각각 '거문도 참돔의 눈물'과 '똥보라서 못갔어요'라고 했다.

메르로신문 강세준 편집국장은 “이들 기사는 3세 중심의 재벌기업들의 문제점을 짚어나가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광고협찬과는 거의 무관한 것들이다. 기사의 내용이나 지면 편집의 합당성 여부를 동아일보 측과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이들 기사가 동아일보의 억측대로 광고협찬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신세계측이 얼마든지 실정법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심한 것은 동아일보가 당해 기사의 참·거짓이나 게재 경위 등에 대해 메트로신문 측에는 전혀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신세계측 입장만 대변해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아일보가 이렇게 사안을 마음대로 해석해 비문을 써놓고 메트로신문이 마치 사이비언론의 대표적 사례인 것 처럼 묘사한 일 자체가 오보를 근거로 기업을 협박하는 사이비언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언론사 규모가 크다고 정도언론이고 규모나 역사가 일천하다고 사이비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동아일보의 사이비 유사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의 둘째 아들인 김재열씨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둘째딸인 이서현씨와 결혼해 현재 둘 다 제일기획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동아일보와 범 삼성가인 신세계는 결국 혼맥으로 이어진 인척 관계 기업인 셈이다.

한편 메트로신문은 지난 4월8일 서울 남대문시장 근처 회현역에서 70대 배포도우미를 폭행하고 당일자 메트로신문을 무더기로 탈취해간 신세계 이마트 홍보팀 직원들을 특수강도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놓은 상태다.

/강민규기자 unha@metroseoul.co.kr

메르스사태, 軍의 심장부 발칵

감염환자 접촉 병사 격리… “의심 증상 없어”

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사 1명을 긴급 격리조치했다. 군과 보건 당국은 해당 병사의 자진 신고 전까지 사실 파악을 못해 방역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 병사의 근무지는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였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계룡대의 한 부대에 근무 중인 A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 12일 간호사인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메르스 진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A일병은 어머니를 만난 날로부터 18일이 지난 30일 저녁 자신이 근무 중인 부대에 어머니를 만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어머니가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부대는 A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채혈에 나섰다. 또 같은 부대원 30여명도 다른 시설에 격리조치했다.

A 일병이 어머니를 만났을 때 A 일병의 어머니는 메르스 감염 환자를 진료하기 이전 상태였다. 이로 인해 군과 보건 당국은 A 일병의 메르스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A일병은 메르스 잠복기간이 지나도록 고열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일병과 함께 생활했던 다른 병사들에게서도 메르스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아기자 yoona1@



메르스 정보는 어디서 구하라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가 불이 꺼진 채 닫혀 있다. 질병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한국법 두 번이나 물 먹였다

2007년 형사소송법 보완
2013년 변호사법 보완
법 허점 여전… 국회 곤욕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 시절부터 자신이 지켜야 할 한국의 법체계를 두 번이나 흔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에 대한 총리 자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회는 법조윤리위원회 측에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다. 윤리협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들며 이를 무시했고, 황 후보자는 이를 방패삼아 버텼다. 황 후보자는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 간 두세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회는 황 후보자의 버티기를 교훈 삼아 청문회 직후인 2013년 5월 변호사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른바 '황교안법'으로 불린 개정안이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맹희 씨 간의 상속분쟁에서 이건희 씨를 소송대리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특위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한 탓에 명확한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 삼성, 태평양 측은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삼성가 상속회복 청구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간의 상속회복 청구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황 후보자는 과거 공안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만들었다. 1994년 3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이다. 당시 황 후보자는 대우조선 노동자 조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이유 없이 피고인의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복사해 주지 않아 헌법소원을 당했다.

헌재는 1997년 “피청구인(황 후보자)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 기록 등사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007년 6월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청문회를 앞둔 황 후보자는 여전히 한국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중이다. 변호사법은 개정됐지만 윤리협의 자료보존 기간은 3년에 불과해 황 후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국회 청문위원들이 수임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윤정원기자 garden@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한국 정말 몰랐나

美 2012년 11월 목성프로젝트수립 후 전모 공개
2013년 10월 한미 공동 BSP구축 협약 체결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주둔중인 오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건과 관련해 "현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조사결과를 한국 측과 신속히 공유하겠다"며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방부는 미군의 탄저균 실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산공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 국방부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 측의 이 같은 해명과 배치되는 증거가 확인됐다. 2013년 10월 한·미 국방부가 맺은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 협정이다.

미 국방부는 2012년 11월 수립한 이른바 목성(JUPITR) 프로젝트에서 한·미 간 BSP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목성 프로젝트의 최종단계였다. 한국 국방부가 목성 프로젝트의 핵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최종단계까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더구나 미 국방부는 프로젝트 수립 이후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생물무기와 관련된 전문매체들도 이를 거들었다. 한국 국방부가 비밀리에 진행된 프로젝트라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31일 메트로신문이 확인한 결과 온라인 상에는 목성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미 국방부 홍보물이 가득했다. 2012년 11월 프로젝트를 수립한 미 국방부는 2013년 3월 관련 문서 공개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모를 밝혔다. 이어 6월에는 프로젝트 담당자가 직접 프로젝트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공개된 미 국방부의 문서와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목성 프로젝트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하고, 분석장비와 감시기를 설치해 최종적으로 조기경보 체제를 갖추자는 게 골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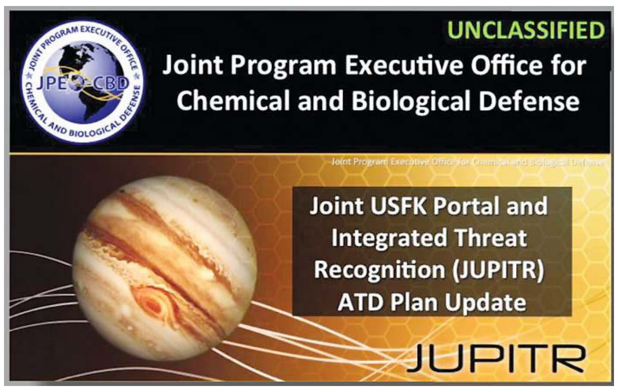
자료에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적시돼 있다. 실제 한·미 국방부는 2013년 10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군 의학연구사령부에서 공동 BSP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초의 국가 간 BSP 구축 협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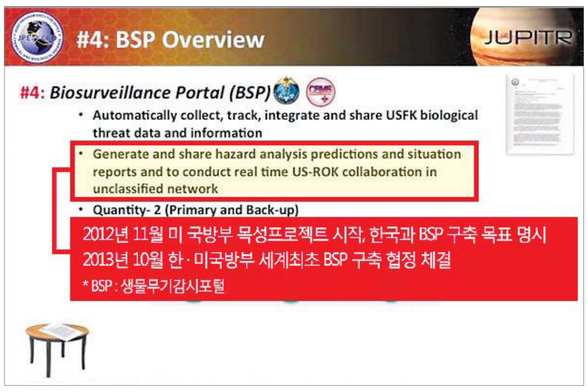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가 2014년 12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내용에는 더욱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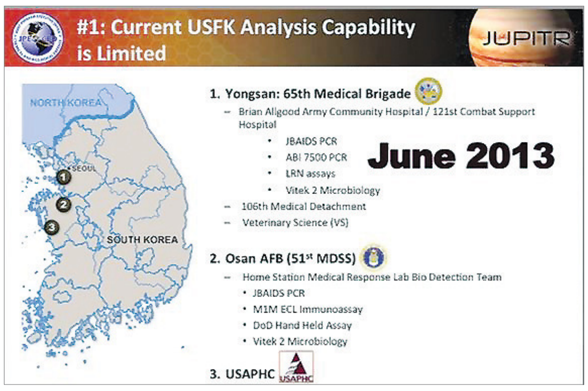
프로젝트의 장소로 한국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 이매뉴엘 박사는 "주한미군 지도부(he senior leadership in the USFK)가 요청했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자산이 집중돼 있는 나라이자 친근하고 호의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실험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그는 "10개의 시스템 중 4개를 채택했다"며 "2개의 시스템을 오산 공군기지에서 (2014년) 9월 초반에 시도했다"고 밝혔다.

목성 프로젝트에는 총 3회에 걸친 한국방문 교육이 계획돼 있다. 2014년에 집중적인 테스트를 거쳐 2015년 내 시연을 한다는 계획도 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프로젝트의 최종단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2013년 6월 4일 유튜브에 게시된 '목성' 프로젝트 홍보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두번째 자료에는 한·미 간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 목표가 적시돼 있다. 실제 한·미 국방부는 같은 해 10월 한·미 공동 BSP 구축 협정을 체결했다.

국가보훈처

광복 70년, 분단 70년
갈등과 분열 넘어 미래로 통일로



2015년도 보훈문예작품 공모전

공모 분야
시, 수필, 포스터, UCC, 추모헌시, 참전수기

참가 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접수기간
5월 19일(화)~6월 30일(화), 오후 6시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결과발표 7월말 예정

문의 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 02-334-9044

공모 주제
▶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 6·25전쟁 65주년을 맞아 국가정체성 확립 및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 국가를 위해 위국·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그 분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내용
▶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
▶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 전적지, 국립묘지 등 호국 보훈관련 시설 탐방 소감
▶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삶과 활동에 관련된 내용
▶ 전공담, 무용담, 전우애 등을 담은 내용, 전쟁 당시 참전용사의 일기, 전우가 남긴 글 등(참전수기)

정부, 메르스 뒷북 대응… 감염 확산 키웠다

문형표, 초기대응 실패 사과
복지부 '핫라인' 전화 불통
3차감염 뚜렷한 대책도 없어

#평택 사는 엄마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질병 관리본부는 전화 자체가 안되네요.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에 3개 전화번호가 다 전화 안되고 대표번호로 해서 물었더니 전화 안 받는 걸 왜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는데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어쩜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지 나원참…(inni***)

31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바이러스 15명 감염 발표 이전 한 카페에 올라온 네티즌의 목소리다. 복지부는 현재 메르스 발생지역 방문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환자를 진료한 경우의 의심환자 신고 또는 메르스에 대한 문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을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핫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10회선을 운영 중인 핫라인은 전화가 폭주할 경우 3회 이상 전화를 걸어도 불통인 경우가 많았다.

◆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시 솜방망이 처벌…유명무실해 화 키워

이처럼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정부와 보건당국의 대처는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 11일 만에 환자수가 15명이 될만큼 급속히 확산된 것은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높다. 31일 문형표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초기대응 실패에 사과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이 메르스 대응 민관 합동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법원의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시 솜방망이 처벌도 감염자의 안전불감증을 키우는데 한 몫 한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예방법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면 법정 최고형이 벌금 200만~300만원 수준이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된 의사 상당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전 국민을 감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위법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강제력이 거의 없는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 다른 국가 초기 대응 신속해 피해 최소화…국내 제기능 못해

발생 11일만에 환자 수가 두 자릿수를 돌파한 우리나라의 보건당국과 달리 다른 국가의 대응은 어떨까? 중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메르스 감염 건수는 영국 4건(3명 사망), 독일 3건(1명 사망) 등으로 3~4명에 그쳤다. 숫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국가는 초기에 감염질환 대응을 잘 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4월은 중동에서 메르스가 월간 300명 이상 발생할 정도로 기승을 부려 전세계 의료진의 경각심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도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의 대응은 올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다. 국내 질병관리본부도 2013년부터 메르스 중앙방역대책반을 운영해왔다. 국내 감염 사례가 없는 기간에도 월요일마다 회의를 열고중동지역의 메르스 전파 현황 등을 파악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대비책이 제 때 제 기능을 발휘한 반면, 국내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드러났다.

◆ 제3차 감염 위기 고조에도 치료제와 백신 없어

현재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는 중동에 이어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다국가가 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더군다나 최초 감염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2차 감염자 중 절반을 넘은 8명은 정부의 격리 관찰 대상자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이어서 정부의 초기 허술한 방역망이 그대로 드러났다. 메르스는 치사율이 40% 수준이어서 '중동 사스(SARS)'로 불린다. 감염체가 사스를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다. 메르스의 초기 방역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제3차 감염 위기마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마땅히 메르스를 치료할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닌 '징역형'

향후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으로 수만원 가량 교통범칙금을 물려 왔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행위가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한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다음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포함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이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홍원기자



주한미군 "탄저균 폐기 처분"

'납득할 설명' 필요

생물학무기로 이용되는 탄저균이 미군 연구소 실수로 미국 내 9개 연구기관과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까지 전달된 사실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SOFA 제26조 1항에서 미국 측이 우리 보건복지부에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명시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바꿔야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저균 논란이 불거지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번 사건 조사 결과를 한국 측과 신속히 공유하고 책임자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살아있는 탄저균 국내 반입 규탄 기자회견에서 미군 복장을 한 참가자가 방독면을 쓴 채 배달된 탄저균을 의미하는 상자를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이에 지난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는 국민들에게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지 받았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철저히 진상을 공개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탄저균 폐기 처분, 사후 재발방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현재 살아있는 탄저균이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 사고 초기 상황부터 최종 오산 주한미군 기지에 이르기까지 명확히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비밀주의에 대해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홍원기자 hong@

'정치성향글 논란' 일부 판사들 "코트넷 없애야"

<법원통신망>

"사법불신" vs "표현 자유"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정치적 성향의 글들이 올라와 사법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코트넷을 없애야 한다는 일부 판사들의 강경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 서울 법원과 재경 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판사의 사견을 어느 수위까지 이해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코트넷에 판사의 사견을 올리는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트넷이 판사와 법원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지만 판사가 글을 올리면 법원 가족 수천명에게 동시에 노출돼 금방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급진적인 판사들은 사견을 내비치는 것 자체가 한쪽 잣대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판사의 직분에 걸맞지 않는다며 코트넷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관윤리강령 4조5항은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A부장판사는 "판사들이 계속 민감한 내용을 담은 사견을 밝히면 국민은 '판사들도 한쪽의 잣대로 판결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선 문제가 돼왔던 코트넷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부 B부장판사도 "생사여탈권을 쥔 판사들이 사견을 함부로 표현하다 한쪽에 치우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려면 불신의 씨앗인 코트넷을 폐지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코트넷에서 판사의 사견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부 C판사는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견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법정 안에선 엄정한 잣대로 판결하고, 법정 밖에서만 사견을 표현한다면 문제될게 있냐"고 반문했다.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판사들은 개선 방안을 대법원 측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정영진(57·사법연수원 1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와 박노수(49·3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문수생(48·26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코트넷에 잇달아 올렸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검사로서 권력의 외압을 떨쳐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에게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메르스 환자 추가 '불안한 대한민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2명 추가돼 총 15명으로 늘어난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관광 하고 있다. /뉴시스

건보공단, 금연캠페인 실시

'제28회 세계 금연의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5월 31일 '제28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서울시 의약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와 공동으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와 이를 응원하는 3000여명의 가족이 참여해 금연서약, 금연구역 걷기 등을 통해 금연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체험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일산화탄소 측정, 콜레스테롤 검사, 금연실천 정보 안내 등 금연 상담 서비스를 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금연치료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흡연자의 금연동참을 독려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은 "흡연으로 인해 연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가 추가 지출되는 등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최치선기자

차명주식 숨긴 김승연 회장, 세금소송 승소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뒤늦게 신고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법원이 법조문만 엄격히 해석해 대기업인 한화그룹 계열사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게 물도록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회장이 "추가로 부가된 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83년 설립된 태경화성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김 회장은 2009년 6월 이 회사 주식 4만300주를 김 회장의 누나에게 1주에 3만5000원씩 받고 넘겼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0% 할증된다.

그러나 김 회장은 중소기업 기준의 양도소득세 10%인 1억4000만원만 납부했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태경화성 관련 자료를 숨겼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준의 세금만 낼 수 있었다. 김 회장은 2011년 3월에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태경화성이 설립일인 1983년 한화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소급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거래법 제14조 3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일정한 시기로 소급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도 김 회장이 누나에게 넘긴 주식에 대기업 계열사 기준을 적용, 추가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김 회장은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 회장은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소송을 강행한 것이다.

김 회장은 주식을 양도한 때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도 주장했다. 공정위 통지가 늦은 것은 자신이 자료를 숨겼기 때문인데도 소송을 냈고, 대법원도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자료를 일부러 늦게 내면 계열사 편입 시기를 소급하도록 한 제14조 3항은 원용하고 있지 않기에 중소기업 기준 세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홍원기자 hong@

서울여대 시각디자인학과, 한글디자인 展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2일부터 21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별관에서 '서울여자, 취미는 한글 – 두 번째' 전시회를 개최한다.

서울여대 시각디자인학과의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 소학회 '한글아씨(한글 아이디어 씨앗)'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글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함께 뜻을 모아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성신여대, 제26회 의류학과 졸업 패션쇼

성신여대(총장 심화진)는 지난 29일 제26회 의류학과 졸업 작품 패션쇼가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에서 열렸다.

31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이번 패션쇼는 '비욘드 패션(Beyond Fashion)'을 주제로 오후 4시와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야외 무대에서 진행됐다.

의류학과 졸업생들은 이번 패션쇼를 모두 12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구성했다.

폭발적 인기 누렸던 '라바열차' 운행 종료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는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라바 테마열차의 운행을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라바열차는 2호선 전동차 1편성(10량)의 내·외부를 라바 캐릭터로 랩핑했다.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인 후 어린이와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왔다. 라바열차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설문참여자의 84%가 운행연장을 원해 5월까지 5개월간 연장 운행을 해왔다.

은행권 "건강 챙기고 우대금리 받으세요"

금연 응원·모임 지원·女특화서비스 등
수수료면제 혜택·맞춤형 적금 선보여



경기둔화와 저금리 여파로 수익성 하락에 고전하던 은행권이 이색 금융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 특정 고객의 취향에 맞춘 테마형 금융 상품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복안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에서는 금연과 다이어트 등 건강관리부터 영화 흥행과 팬심을 자극하는 예·적금 등 이색상품을 속속 출시하며 고객잡기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매일매일 금연성공 여부에 따라 미리 지정한 소액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스마트 금연적금'을 출시했다.

이는 온라인 전용 적금상품으로 연간 365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기간에 따라 6개월, 12개월 두 종류로 나뉘며 출시일 기준 기본금리는 각각 1.65%, 1.75%다.

만약 신규 후 1개월 이내에 우리은행 홈페이지 내 금융상품몰을 이용해 금연다짐 이메일을 5명 이상에게 보내면 연 0.2%p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통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연 0.3%p 등 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 최초로 개발한 '금연성공 자동이체'를 통해 이체 등록을 하면 매일 스마트폰 Push 메세지를 통해 금연성공 여부 응답만으로 별도의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바로 입금할 수 있다.

금연Push 서비스를 통해 금연성공이체를 30회 이상 실행한 고객 105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금연응원 기프티콘도 제공된다.

영화 흥행여부 등에 따라 혜택을 주기도 한다.

IBK기업은행은 영화 '연평해전'의 흥행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연평해전 통장'을 500억원 한도로 판매중이다.

이 예금은 1년만기 예금 상품으로 '중소기업금융채권' 또는 '실세금리정기예금'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기본금리는 연 1.95%이며, 영화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시 연 2.00%, 300만명을 넘을 경우 연 2.10%의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실세금리정기예금는 기본금리 연 1.75%로 관객 100만명 이상시 연 1.80%, 300만명 이상시 연 1.90%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사내모임이나 동창회, 동아리 등 모임활동을 지원하는 상품도 있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의 모임전용 통장인 '오징어 통장'이 바로 그 주인공.

오징어란 '오랫동안 징그럽게 어울리자'의 줄임말로 부산은행은 이 통장을 통해 인출, 가입하는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대해 0.2%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제휴업체를 통해 꽃배달과 여행상품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모임이 단체로 해외여행시 환전수수료를 연1회에 한해 70%까지 할인해 준다. 거래실적에 따라 우수모임으로 선정될 경우엔 해당 예금주의 예금관련 수수료를 대부분 면제해준다.

여성과 부부를 위한 맞춤형 적금도 있다.

대구은행은 직장인 여성과 주부 등 여성 모두에게 특화된 이율을 제공하는 'DGB여(女)러분적금'을 선보였다.

'DGB여(女)러분적금'은 결혼이나 출산 등 여성들의 생애 주기 중 특별한 날이나 자원봉사활동, 기부에 참여한 여성에게 최고 0.5%p의 우대이자율을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임신과 출산, 다자녀 등을 테마로 젊은 부모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NH아이해피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NH아이해피적금은 출생과 돌, 입학 등 아기의 성장에 따른 이벤트 발생 시 이자 손실 없이 적립금을 찾아 쓸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적금 가입 기간 중 임신 또는 출산 시 0.1%p, 다자녀인 경우 최고 0.2%p, 자녀 명의로 적금 신규 가입 시 0.3%p 등 최고 0.9%p의 우대금리를 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삼성생명, '벽화그리기' 재능기부 활동 실시 삼성생명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덕산초 대장분교에서 '사랑나눔 벽화 그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동화속 마을풍경'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벽화그리기 행사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생명 청소년 미술작품 공모전 역대 수상자와 국민대 미대생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부천덕산초등학교 대장분교에서 청소년 미술작품 공모전 역대수상자가 벽화를 그리고 있다. /삼성생명 제공

금융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사각지대 줄여야"

정부가 지난해 서민금융 대책으로 내놓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서민금융사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개편 논의 방향 및 과제' 보고서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서민금융 인프라를 개선해 민간 서민금융사의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정책성 서민금융의 중복지원과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법 개정안이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위축, 채무조정의 공정성 및 중립성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을 민간부분의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하고 정책성 금융이 개입해 서민금융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협약 가입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시 법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총괄해 관리할 수 있으므로 중복상품을 일원화하는 등 서민금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통합기구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진흥원 재원을 활용한 대출 확대에 대해 그는 "민간금융회사와 협력을 통해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흥원 설립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함께 있지만 조속히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서민금융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김보배기자 bobae@

규제 밖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 1500억원 돌파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 규모가 1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그림자금융 규모는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1503조원으로 집계됐다.

그림자금융은 투자은행이나 사모펀드처럼 은행과 비슷하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공급하는 일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의 엄격한 건정성 규제를 받지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부문별로는 증권회사가 362조원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집합투자기구(MMF 제외) 359조원, 신탁계정 299조원, 자산유동화회사 및 대부업자 231조원, 여신전문금융기관 167조원, 머니마켓펀드(MMF) 86조원 순이다.

박 의원은 "그림자금융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 등 당국이 관련 통계와 분류기준을 조속히 정비해 위험요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로또복권 제652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3	13	15	40	41	44	20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3,003,483,52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69,525,082
3등	5개 숫자 일치	1,664,165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이젠 당당하고 상쾌한 당신"

금연자들의 전성시대

국민건강보험이 당신의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금연치료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의료기관
-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병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 금연치료 의료기관 정보는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금연치료 지원내용
-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 상담료의 70%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의 30~70% 지원

인센티브 지급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 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예정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well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끊임 없는 건설사 담합… 정부 비웃나

정부 예방종합대책 발표에도 지속 적발 입찰참가제한 제도 등 실효성 따져봐야

2012년 4대강 사업 건설사 담합 적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건설사들의 담합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당국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

◆정부 건설사 입찰 담합 방지대책 내놔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담합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1사1공구제' 폐지다.

1사1공구제는 낙찰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거나 이로 인해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건설사별로 공구를 나눠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고 오히려 담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찰 과정에서 싼값을 제안한 건설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줘 저가경쟁을 유발하던 최저가낙찰제도도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됐다.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엔 담합행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벌금이 2억원까지 확대된다. 건설사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1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책 발표 후에도 끊이지 않는 담합

하지만 건설사의 담합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천연가스 주배관과 관리소 건설공사'를 담합한 23개 건설사에 과징금 174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이 공사에서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총 27건의 주배관 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5 건설산업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장이 건설업체 입찰단합 예방과 시장불확실성 완화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수주한 업체는 22개사 모두가 한 번씩 수주할 때까지 추첨자격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고,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 예정자의 낙찰을 도와주기로 했다.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낙찰업체 직원이 들러리 참여사를 방문해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된 투찰 내역서 문서 파일을 폐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고속철도(수서 ~ 평택) 제4공구 건설 공사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등 최근 과징금을 부과받은 담합 건수는 수십건에 달한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 의문

업계 안팎에서는 당국의 대책에 실효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지적은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 5년을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사는 담합 적발 시기가 아닌 담합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건설사가 2010년 1월 담합행위를 한 후, 공정위로부터 2014년 12월에 적발됐을 경우 이 건설사는 입찰제한이 1개월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 한 것.

또 해당 업체가 제재에 반발해 법원에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판결까지 제재를 면할 수 있다.

통상 최종판결까지는 1~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건설사는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담합행위가 올초 당국이 마련한 대책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 도입 등 건설사의 제재 수위를 완화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5월 CBSI 지수 94.6 '소폭상승'

신규수주 증가…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

주택경기 호조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전망치가 3개월 연속 100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질 수치는 아직 기준선에는 못미쳐 건설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월 CBSI 전망치가 101.5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CBSI는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5월 CBSI는 전월보다 3.2포인트 상승한 94.6을 기록했다. 이는 5년 반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 3월(94.9)과 근접한 수치다. 다만 4월에 기대한 5월 전망치(101.2)보다는 6.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중소업체 지수가 상승한 반면, 그 동안 상승폭이 컸던 중견업체 지수는 하락했다.

대형업체는 전월보다 7.1포인트 상승한 115.4를 기록해 6개월 연속 기준선을 상회했다. 중소업체도 82.0으로 4월보다 14.1포인트 올랐다. 중견업체는 전월보다 14.1포인트 하락한 84.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지방 업체가 6.9포인트 상승한 82.6을 기록해 지난 2003년 10월의 83.1 이후 최대로 상승했다. 서울은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03.0를 기록했다.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104.8을 기록해 기준선(100.0)을 상회했다. 공종별 신규수주 지수는 토목공종이 99.3을 기록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택공종(96.8), 비주거건축공종(98.2) 순이었다.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103.9를 기록했다. 중견과 중소업체의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각각 107.9, 102.0였다. 대형업체는 100.0을 기록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월에도 주택경기가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신규 공사수주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도 "CBSI 수치가 아직 기준선(100)에는 못 미쳐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에부부 중학교 도서관 리모델리 봉사활동 실시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법인은 나이지리아 포트하코트시 엘레메 마을에 있는 에부부 중학교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도서 수백권을 기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인이 있는 엘레메 마을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대우건설은 이 학교의 도서관 건물 도색, 출입문과 창문 교체, 책장과 책걸상 등 가구를 구비했다. /대우건설 제공

메르스 공포, 중동 건설현장도 '초긴장'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MERS)의 확산에 건설업계도 연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해외건설공사 70% 이상이 메르스 발병 근원지인 중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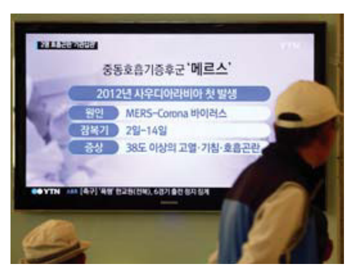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9일 중동 건설 현장과 지사를 비롯해 모든 임직원에 대해 메르스 예방수칙과 대응지침을 전달했다. 의심환자 발생시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토록 했다. 중동출장 복귀 후에는 5일 이내에는 체온측정과 문진 등 검사를 받도록 했다.

삼성물산은 중공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GS건설과 대림산업도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해 메르스 증후군의 대응지침을 공지했다.

해외건설협회도 메르스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해건협은 오는 8일 중동으로 출장을 나가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열릴 예정이던 '중동 지역 전망' 세미나에서도 메르스에 대한 교육 시간이 포함됐다. 해건협이 운영하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가입자 2만8000명에게는 메르스 관련 메일을 송부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메르스는 현재까지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모든 환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중동지



역(특히 사우디아라비아)과 연관돼 있다. 중동지역에서 체류했거나 낙타시장 또는 농장 방문, 낙타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낙타와의 접촉 사례가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20일 최초 확진 환자가 나왔으며 현재까지 1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석기자

배당성장지수 성장세…편출입 종목 관심 집중



지난달 28일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금융지수를 모니터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 날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2110선을 회복했다. /연합뉴스

11일 첫 정기변경
NH투자·하나대투證 연구원 고려제강·삼진제약 등 꼽아

'배당성장지수'가 올해 상승랠리를 펼치면서 오는 11일 시행되는 배당성장지수 편입·편출 종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배당성장지수는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가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내놓은 지수다. 배당성장지수는 코스피 배당성장50지수, 코스피 고배당50지수, 코스피200 고배당지수, 코스피우선주 지수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와 연기금의 배당투자가 확대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배당성장지수의 상승 랠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는 연초보다 25.0% 올라 같은 기간 코스피(11.1%) 상승률을 웃돌았다. 50개 구성 종목 중 13개만 하락했다. 특히 구성 종목 중에서 크라운제과, 한솔케미칼, 삼립식품, 한샘, 태림포장, 롯데칠성, 유한양행, 롯데푸드, 오뚜기, 케이씨텍, 종근당홀딩스, SKC 등의 종목이 올해 50%를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17.21%, 코스피200 고배당지수와 코스피 우선주 지수는 각각 16.05%, 12.64%씩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시행되는 배당성장지수 편입·편출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기금의 배당 투자가 확대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라며 "최근 배당성장지수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정기 변경을 앞두고 새로 예상 종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배당성장지수는 국내 큰손인 국민연금이 배당투자를 하기 위한 기준 지수(벤치마크)로 삼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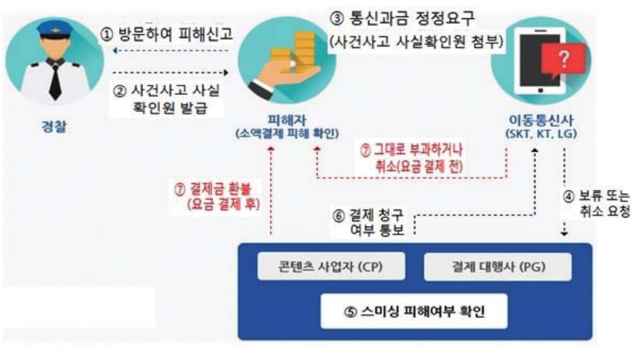
김 연구원은 한국거래소의 종목 심사와 선정 기준을 적용해 편입 가능성이 큰 14개 종목을 추출했다. 그 결과 고려제강, 삼진제약, 한국카본, 보령제약, 한국콜마홀딩스, 한세예스24홀딩스, 동원F&B, DRB동일, 엔씨소프트, 한전KPS, 아모레G, 대원제약, 대상홀딩스, 삼양통상 등이 꼽혔다고 분석했다.

장희종 하나대투증권 연구원도 "신배당지수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앞두고 편출입 종목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부진한 실적 때문에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기업이나 소형주 중에서는 유동성 기준에서 미달되는 종목이 많아 종목변경 폭이 클 것"이라고 관측했다.

코스피 배당성장지수 신규 편입 예상 종목으로는 고려제강, 호텔신라, 한국금융지주 등 29개가 꼽혔다. 다음은 신규편입 예상종목이다. 대덕전자, 삼양통상, 한미반도체, 삼진제약, 삼성카드, 한국콜마홀딩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일동제약, 한세예스24홀딩스, 디와이, F&F, 삼성화재, 동원F&B, 광동제약, 다우기술, 보령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엔씨소프트, KT&G, 삼영전자, 조광페인트, 아모레퍼시픽, CJ, 아모레G, 대우인터내셔널, 한국카본.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소액결제 피해발생 대응요령. /금감원 제공

할인쿠폰 문자, 스미싱 주의보

금감원 Q&A

실행경로에 악성코드 포함 접속만해도 수십만원 결제
예방요령은? 소액결제 기능 차단 '폰키퍼'로 감염 방지

Q. 며칠 전 'ooo치킨 첫 행사 만원 할인쿠폰 제공' 문자를 받고 해당 웹사이트를 클릭해 앱을 설치했는데 실행되지 않아 그냥 종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금청구서를 보니 게임머니 구매 용도로 20만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요?

A. 위 사례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관심사항 등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 실행경로를 포함한 문자메시지(스미싱, Smishing)를 발송해 웹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수십만원씩 결제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러한 스미싱 유도문자는 청첩장·돌잔치 초대, 교통범칙금 조회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한단계 진화된 수법으로 폰뱅킹 사용자로 하여금 인증이 필요한 것처럼 사용자를 속여 QR코드를 통해 악성 앱을 다운받도록 한 후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는 큐싱(Qshing)사기 피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요령으로는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해주도록 요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폰키퍼(phone keeper)' 등을 활용해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①경찰서에 피해내역을 지참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②통신사 고객센터에 금융사기 피해접수·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받은 통신사는 스미싱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결제금 환불(취소) 또는 부과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정리=김민지기자

달러 강세·그리스 불안…. 지수 상승 '발목'

| 주간 증시전망 |

美 고용 호조… 긴축정책 우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장기화



28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고용부 청사 앞에서 열린 반긴축 시위에서 한 남자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아테네=AP 뉴시스

이번주(6월 1~5일) 코스피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등 환율 우려로 상승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도 국내 증시의 부담 요인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26~29일) 코스피지수는 주 초반 2140선에서 강보합 출발해 29일 종가기준 2114.80까지 떨어지며 1.34% 하락 마감했다. 주 초반에는 글로벌 채권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며 외국인 매수가 이어졌다. 다만 지난달 27일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가 새로운 신흥국지수에 중국 A주 편입키로 하자 외국인이 선·현물에서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번주에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 발표(1일), 고용보고서 발표(5일) ▲ECB(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3일) ▲그리스의 국제통화기금(IMF) 부채 상환(5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5일) 등 굵직한 이슈가 준비돼 있다. 중국A주의 FTSE 편입이 오는 9일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의 신흥국지수 편입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우선 미국 ISM의 5월 제조업지수에서는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된 지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산업생산 부진과 지역 제조업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 큰 폭의 개선세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오태동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ISM의 개선된 제조업지수 발표는 1Q 부진했던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2Q 경기 개선 영향으로 달러화 강세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달러 강세와 함께 5일 예정된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 발표도 호실적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증시에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5월 민간고용 컨센서스는 전월(22만1000명) 보다 소폭 증가한 21만3000명으로 예상된다"며 "6월 FOMC를 앞두고 미국 고용 호조가 나타나면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부각될 것이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ECB 정책 및 그리스와 채권단의 줄다리기도 이슈다.

그리스는 오는 5일 IMF에 부채 3억 유로를 상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 총 네 차례에 걸쳐 16억 유로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오태동 연구원은 "그리스는 IMF 자금 상환은 문제없이 처리할 것이나 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협상은 여전히 난항으로 그렉시트 우려감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ECB의 양적완화 확대로 그리스 외 국가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 그리스 이슈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어 오는 5일에는 OPEC의 유가하락 대책 회의도 예정돼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존 3000만 배럴의 생산량을 유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원유생산량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원유 공급과잉 이슈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의 큰 폭 반등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보배기자 bobae@

애플 이어 구글도 모바일 결제시스템 공개

삼성페이 '첩첩산중'

삼성전자가 이르면 7월 초 '삼성페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공략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애플의 '애플 페이'가 북미 시장에 안착하며 잠식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페이' 출시를 앞두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페이'를 공개한 것이다. 특히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말기 보급이 중요하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북미와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에 밀려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지난 1분기 전체 아이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증가했다. 특히 중국시장은 1년 전보다 판매량이 70%나 늘어났다. 반면 삼성전자는 점유율 하락을 거듭하며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OS를 지원하고 있는 구글도 '안드로이드 페이'를 공개하면서 모바일 결제 시장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페이는 매장과 모바일 앱에서 두루 이용할 수 있다. 로열티 프로그램과 같은 포인트 충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애플 페이'
점유율 앞세워 북미시장 잠식

구글 '안드로이드 페이'
스마트폰 OS 81.5% 장악

구글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구글 I/O 2015'서 차세대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M' 프리뷰를 발표했다.

올해 3분기에 공식 발표 예정인 이 OS는 모바일 결제와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안드로이드 페이와 지문인식 기능은 OS 차원에서 상호 연동된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M 공식 발표 후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안드로이드 페이는 기존 애플 페이와 유사한 결제 시스템이다. 근거리무선통신(NFC) 모듈이 내장된 안드로이드 기기를 NFC가 탑재된 결제단말기에 대고, 지문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이다.

삼성 페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삼성 페이는 NFC 단말기는 물론 기존 마그네틱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범용성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드로이드 페이의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확장성에서 상대적으로 이점을 갖고 있다.

스마트폰 OS 장악력도 안드로이드 페이의 강점으로 꼽힌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81.5%에 달했다. OS에 포함된 안드로이드 페이는 여러 기기에서 모바일 결제를 지원할 수 있어 빠르게 시장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업계관계자는 "모바일 결제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업체가 늘고 있지만 결국 많은 기기에 탑재된 솔루션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한진·양성운기자 hjc@metroseoul.co.kr



"갤럭시 S6 모델 도전하세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갤럭시 S6 컬러 스튜디오'에서 현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패션 모델들과 함께 '갤럭시 S6' 블루 토파즈와 '갤럭시 S6 엣지' 그린 에메랄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구자열 회장, 초전도기술 상용화 총력

제주서 신기술 확보현황 점검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지난달 29일 제주초전도센터와 HVDC스마트센터를 방문해 현장경영을 펼쳤다. /LS그룹 제공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제주로 향했다. 신성장동력인 초전도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LS그룹은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구 회장이 이광우 ㈜LS 부회장과 LS전선·LS산전의 주요 기술·영업 임원 등과 함께 제주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LS전선 초전도센터와 LS산전 HVDC스마트센터를 방문해 그룹의 신기술 확보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LS그룹 설립 이후 신기술과 신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이어 온 '회장과의 만남' 활동의 일환이다. 구 회장은 현장경영을 통해 향후 그룹을 이끌어 갈 차세대 성장동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LS전선과 LS산전은 제주도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차세대 전력망의 핵심기술인 초전도와 HVDC 기술 등을 실 계통에 적용하고 신뢰성을 검증하는 등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구 회장은 이날 LS가 이미 확보한 초전도 케이블 선로와 HVDC 변환시설 등을 살펴보고 특히 현재 실증 준비 중인 더 높은 전압의 초고압 프로젝트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구 회장은 "LS그룹이 신사업으로 추구하는 에너지 효율 기술이 총 집결돼 있고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 최종적으로 검증되는 곳이 제주도인 만큼, 이 곳에서의 사업 성과가 LS그룹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정부 중심의 기술 국산화 프로젝트를 충실히 이행하고 또한 실증을 완수함으로써 초전도와 HVDC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실히 LS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해외에서 대규모 사업을 수주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LG전자, 美 빌트인시장 '디자인'으로 승부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
프리미엄 패키지 선봬

LG전자가 빌트인 가전 시장이 대중화된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디자인을 강조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인다.

미국은 냉장고와 오븐, 식기세척기 등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주방가구와 한꺼번에 세팅하기 때문에 빌트인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LG전자는 미국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네이트 버커스를 디자인에 참여시킨 프리미엄 빌트인 키친 패키지를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네이트 버커스'가 지난달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인테리어 디자인 박람회인 '드웰 온 디자인'에서 관람객들에게 프리미엄 빌트인 키친 패키지 'LG 스튜디오'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는 29~31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인테리어 디자인 박람회 '드웰 온 디자인'에 참가해 'LG 스튜디오(Studio)' 신제품을 전시했다. 행사 첫날 네이트 버커스가 LG전자 부스에서 관람객에게 직접 LG 스튜디오 패키지를 소개했다.

버커스는 '집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는 철학으로 현대적 감각의 간결한 디자인을 추구해온 인테리어 전문가다. 2002년부터 '오프라 윈프리 쇼'에 고정 출연해 인기를 얻었고 현재 미국 NBC '아메리칸 드림 빌더' 진행자로 활약 중이다.

LG 스튜디오는 오븐레인지, 냉장고, 쿡탑, 빌트인 오븐,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등 고급 빌트인 제품을 포함한 키친 가전 패키지로 가격이 2만 달러에 육박한다.

이번 전시 라인업은 모든 제품에 스테인리스 소재를 적용하고 평면 타입의 도어를 채택해 통일감과 세련미를 강조했다.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 손잡이를 적용한 가스 오븐레인지와 전기 오븐레인지를 선보였다. 전면의 글라스 재질 디스플레이 조작부는 사용자 방향으로 기울어져 조작이 편리하다.

세미빌트인 냉장고는 제품 깊이를 주방가구와 맞춤형으로 설계했고 도어를 평면으로 처리해 깔끔하다.

2013년 미국에 처음 출시한 LG 스튜디오는 작년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성장했다. 작년 200여개 유통채널에 진입했고 올해 3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LG전자는 '네이트 버커스'가 디자인한 'LG 스튜디오' 신제품을 올 3분기에 본격 판매할 계획이다.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한 'LG 스튜디오'로 미국 프리미엄 빌트인 시장 공략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ysw@

LGD, SID서 기술력 뽐낸다

LCD·OLED 논문 20편 발표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한상범)는 내일부터 5일까지 미국 산호세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SID) 2015'에서 LCD와 OLED 기술 관련 논문 총 20편을 발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SID에서 LG디스플레이는 세계최초 18인치 플렉시블OLED의 핵심 기술, UHD해상도의 초대형 OLED TV를 실현한 신개념 OLED 기술, 대형 LCD에서의 AIT(Advanced In-cell Touch) 기술 등 3편의 공식 초청 논문을 포함해 OLED 관련 6편, LCD관련 9편 등 총 20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일(현지시각) 강인병(사진) LG디스플레이 CTO(전무)는 '디스플레이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사물인터넷과 5G시대 도래에 따른 디스플레이 혁신의 방향과 LCD와 OLED의 기술 진화 및 투명과 플렉시블과 같은 미래 디스플레이에 있어 OLED의 과제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임은정기자

삼성전자, 美 컨슈머리포트 악몽 끊을까

지난해 갤럭시 S5, 높은 평가 받고도 시장에선 고전
SUHD TV 역대 최고점… '펠리의 저주' 되풀이 우려



삼성전자의 올해 전략 TV제품인 SUHD TV가 '컨슈머리포트'의 저주에서 벗어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컨슈머리포트는 비영리단체인 미국 소비자협회가 1936년부터 펴내온 잡지인데 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지 않고 시중에서 직접 구입해 평가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컨슈머리포트의 호평에도 삼성전자 제품 중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제품이 있다. 그 중 단적인 예로 갤럭시S5를 들 수 있다.

지난해 컨슈머리포트는 애플의 대화면 스마트폰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출시 당시 삼성전자 갤럭시S5가 여전히 최고의 스마트폰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출시 당시에도 갤럭시S5에 대해 화질과 배터리수명, 사용성 등 전 부문에 걸쳐 최고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갤럭시S5는 수요 예측 실패와 애플이 대화면을 장착한 아이폰6 시리즈에 밀려 고전했다. 컨슈머리포트가 최고의 폰으로 평가했지만 시장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마치 '펠레의 저주'를 연상케 한다. 전설적인 축구 선수 펠레가 월드컵 등 큰 대회를 앞두고 팀 성적을 예측하면 대부분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31일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65인치 SUHD TV(65JS9500)는 HD화질, UHD 성능, 음질, 다기능 등에서 최우수(excellent) 평가를 받아 총점 81점을 획득했다.

81점은 역대 컨슈머리포트의 LCD·LED TV 평가에서 최고점이다. 이번에 평가한 162개 TV 모델 중 80점대는 65JS9500이 유일하다. SUHD TV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5 출시 당시와 비슷하게 올해 전략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컨슈머리포트는 삼성 SUHD TV에 대해 "고해상도 화질, UHD 성능, 음질에서 여태껏 테스트한 제품 중 가장 좋은 TV 중 하나"라며 "색 정확도가 우수하고 높은 명암비와 로컬디밍 기술로 영상이 화면에서 튀어나올 듯 보인다"고 평했다.

또 "4K 영상의 세밀함을 그대로 전달하며 HD에서 UHD로 화질을 업스케일링하는 기능이 탁월하다. 왜곡 없이 울리는 고출력 오디오 성능으로 블록버스터 영화나 콘서트를 볼 때도 홈시어터나 고성능 스피커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호평했다.

컨슈머리포트의 이번 5월 테스트는 신제품 30개를 처음 평가한 것으로 올해 주요 TV 메이저 업체 신제품들의 진검승부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로 삼성전자가 TV 사업 부문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의 안정화를 넘어 악화되고 있는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컨슈머리포트는 55~59인치대에서 OLED TV에 대해 가장 좋은 평가를 했지만, 어두운 장면을 볼 때 좌우 가장자리 부분에서 미세한 다크닝(darkening) 현상과 일시적인 영상 잔상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가스公, 사장 후보 관피아 논란 '마침표'

에너지분야 민간 전문가 이승훈·최기련 압축

한국가스공사가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가스공사가 최근 차기 사장 후보군을 에너지 분야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로 선정하면서다. 부채비율 380%(작년말 기준)가 넘는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달 29일 차기사장 후보로 이승훈(7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최기련(68) 아주대 명예교수를 선정했다.

가스공사는 이달 19일 오후 2시 대구 본사에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사장으로 선출한다.

가스공사는 이번 신임 사장 선출을 통해 관피아 등 낙하산 논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는 2008년 10월 현대종합상사 부사장 출신 주강수 사장이 취임했을 당시 'MB (이명박 전 대통령) 낙하산'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이 같은 인사 논란은 현 정부까지 이어졌다.

신임 사장 후보와 함께 발표된 비상임이사 후보 9명 중 장만교 후보(58)는 현재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 선거 캠프에 몸담고 있다. 홍순직 후보(65) 는 지난해부터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관피아와 정피아(정치+마피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비판에 부딪혔고, 홍 후보는 지난 30일 사퇴했다.

그러나 신임 사장 후보인 이 교수와 최 교수는 에너지 분야에 정통한 인물이다.

이 교수는 1997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편추진위원장, 1999년 산업자원부 민영화연구기획팀장, 2000년 한국산업조직학회·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 2010년 전력산업연구회·나라발전연구회 이사장, 2010~2014년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역임했다. 2013년부터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최 교수 역시 1986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987년 한국전력공사 시장정책담당 특별보좌역을 거쳐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아주대 대학원 에너지 시스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에너지 전문가다.

한편 가스공사는 장석효(57) 전 사장이 비리 혐의로 지난 1월 해임된 뒤 이종호(57)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

야구장 재현… 인간과 사물 연결한 5G세상 선봬

KT 'WIS 2015' 성료

KT(회장 황창규)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World IT Show 2015' 전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KT는 자사의 야구단 KT위즈의 홈구장을 WIS 전시관에 그대로 옮겨와 '모든 사물이 연결된 5G 세상, GiGAtopia'를 주제로 다양한 5G 기술과 사물인터넷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야구를 접목한 게임과 이벤트 등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방문한 데 이어 국내·외 ICT 관련 주요 인사들과 학계 관계자들이 KT 전시관을 찾았다.



야구장 컨셉트로 단장한 WIS 2015 KT 전시관. /KT 제공

KT 전시관에서는 사측이 판교에 개소한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입주 업체들의 기술도 시연됐다. 관람객들은 브이터치가 개발한 원격 사물 제어 솔루션과 중소기업 이리언스가 개발한 홍채 인식 결제솔루션 등을 체험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인 모카월렛과 3D 센서가 보다 정확하게 방문자를 검출하고 방문 정보를 분석해주는 세계 최초 기술인 피플 카운터도 선보였다.

오영호 KT 홍보실장은 "이번 WIS 2015에서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KT 전시관에 함께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KT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주도하며 온 국민이 즐겁고 편리한 GiGA topia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SKT, 3차원 증강현실 '탱고' 시연

구글과 협력모델 구축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구글 개발자 콘퍼런스 '구글 I/O 2015'에서 자사의 증강현실 플랫폼과 구글의 3D 기술이 결합된 'T-AR 포 프로젝트 탱고(for Project Tango)'를 공개하고, 3D 센서가 탑재된 IT기기 '탱고(Tango)'를 이용해 이를 시연했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공간인식이 가능한 탱고 단말에 자사가 개발한 증강현실 플랫폼인 'T-AR'을 결합해 3차원 공간을 분석하고 인식해 가상의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SK텔레콤은 프로젝트 탱고를 위해 T-AR을 업그레이드 했다. 이번에 선보인 'T-AR 포 탱고'는 공간 인식을 통한 3차원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점이 특징이다.

양사는 혁신적 IT 기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하는데 합의하고 지난해 말부터 프로젝트 탱고의 일환으로 증강현실 솔루션 개발을 위해 협력해왔다.

SK텔레콤은 T-AR을 통해 증강현실·가상현실을 포함한 미래형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은 "이번 시연은 SK텔레콤의 증강현실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될 것"이라며 "SK텔레콤은 'T-AR'을 통해 차원이 다른 증강현실 체험 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hm0108@

LGU+, 학교급식 위생 솔루션 '식중독 예방' 추가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IT솔루션 전문업체인 ㈜사랑넷(대표 최종원)과 손잡고 지난해 개발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솔루션 '스마트프레시'에 식중독 예방 기술을 추가해 새롭게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마트프레시 솔루션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선통신 기반의 중심 온도계 및 염도계가 추가돼 기존 온·습도 정보 외에 식품의 중심 온도, 염도 정보를 추가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스마트 프레시는 다음달 말까지 개발을 완료해 오는 7월 대한영양사협회 주관 '2015 식품기기전시회'에서 영양(교)사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임은정기자 eunj71@

동대문 소상인들, 면세점 패러다임 바꾸나

제일평화 상가 소상공인들, 서울 시내면세점 도전
도매시장·현대식 쇼핑몰·봉제공장 등 활성화 기대


제일평화 시장 조감도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내 면세점 후보지로 한류 패션의 성지인 동대문시장 일대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의 터줏대감격인 '제일평화' 상가의 소상공인들이 면세점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제일평화 상가를 운영하는 ㈜제일평화는 400명 이상의 주주, 수 천명의 입점 상인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상가 건물 6~7층에 '동대문 제일 면세점'을 짓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제일평화 컨소시엄의 이윤하 시내면세점 추진단장은 "제일평화 시장은 동대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바로 옆, 도매상권 진입 지점에 있어 중국·일본 등 외국 관광객 수요가 많다"며 "수 십 년 동안 동대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한 소상인들의 경험도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제일평화 상가의 구체적인 면세점 운영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들의 면세점 사업 참여만으로도 반가운 소식이다.

1979년 개장한 제일평화 상가는 동대문 시장내에서도 심장부로 가장 주목받는 곳이다. 의류뿐 아니라 핸드백, 구두, 액세서리까지 고급 패션을 판매하며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동대문 제일백화점'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4~7층까지 4개 층을 리모델링하며 고객 편의 시설을 보강하고 외관을 현대적으로 바꿨다.

동대문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최신 유행 패션을 볼 수 있는 곳이다. 30여개의 도매 쇼핑몰과 약 3만개의 상점이 입점한 대한민국 패션 1번지다.

하루 100만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국내 대표적 관광 명소이자 패션산업 집적지이지만 뉴욕, 파리, 밀라노 등 세계적 패션 도시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제일평화시장이 면세점으로 지정되면 한국 패션의 메카에서 세계적인 패션 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해 봄직하다.

인근 평화시장 등 전통 도매시장을 비롯해 두타, 디자이너클럽 등 현대식 쇼핑몰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 시장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15만여 소상인들은 물론 인근 창신동의 3000여개로 추산되는 봉제 공장 등 제조업체들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특히 '조세 수입을 포기해야하는 사업으로 수익금은 공익 목적에 써야 한다'는 면세점의 사업 취지와도 부합한다.

해마다 20%가 넘는 성장을 거듭하며 지난해 8조3000억원에 달한 면세점 시장의 과실은 고스란히 대기업 몫이 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과 호텔신라 면세점은 30년 넘게 독과점 지위를 누리며 경쟁력이 약한 국산품의 판매 촉진에는 관심없이 외국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독점과 특혜만 더욱 굳어지며 재벌 지배가 반영구화되고 있는 면세점 시장에서 제일평화 상가의 면세점 지정이 적극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이참에 제일평화상가 뿐만 아니라 남대문시장의 면세타운 지정도 고려해 볼 일이다.

/염지은기자 senajy7@metroseoul.co.kr


품질 인증 받은 수산물 맛보세요 31일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열린 '2015 바다의 날, 국가가 인증한 웰빙수산물 기획전'에서 모델들이 수산물 인증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롯데, 美 '더 뉴욕 팰리스 호텔' 인수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29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더 뉴욕 팰리스 호텔'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대표 송용덕)는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을 인수해 운영할 법인을 세울 예정이며 8월 말까지 인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수 금액은 8억5000만 달러다. 맨하탄 미드타운 매디슨 애비뉴에 위치한 지상 55층 규모의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은 총 909개의 객실, 23개의 연회장을 운영하고 있는 뉴욕의 대표적인 럭셔리 호텔이다. 세인트패트릭 대성당, 센트럴파크, 카네기홀 등 뉴욕의 주요 관광 명소와 인접해 세계 각국의 정상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명사들이 사랑하는 호텔로 잘 알려져 있다.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은 133년 전 철도왕 헨리 빌라드의 고급 주택인 빌라드 하우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1982년 뉴욕 최고 부호인 해리 헴슬리가 '헴슬리 팰리스 호텔'로 개조했다.1993년 브루나이 국왕이 인수하면서 현재의 더 뉴욕 팰리스 호텔로 이름을 바꿨다. 100년 이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건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 역시 뉴욕의 랜드마크로서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이 갖는 상징성을 크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롯데는 이번 인수로 국내 브랜드 호텔 최초로 뉴욕 맨하탄 중심가에 호텔을 보유하게 됐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시내면세점 오늘 입찰 마감… 눈치전 치열

대기업 후보지 초관심
마감 후 물밑경쟁 예상

유통업종 마지막 노다지로 불리는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마감일인 오늘 1일,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점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1일까지 해당 지역 관할 세관에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를 접수해야한다. 관세청은 전문가 심사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7월 중 대기업에 두 곳, 중견·중소기업에 한 곳의 면세점을 내준다.

관심사는 대기업 몫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다. 출사표를 낸 기업은 현대백화점·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SK네트웍스(워커힐)·한화갤러리아·롯데면세점·이랜드그룹·신세계그룹 등 재벌가 7곳이다.



서울 면세점 사업권 획득에 오너들도 자존심을 걸고 직접 사업을 챙기고 있다. 면세점 낙점 여부에 따라 오너들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입찰 마감일인 1일 저녁 6시까지 막판 눈치 작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는 "입찰 마감이 오후 6시다. 입찰 마감 직전까지 경쟁사의 공개되지 않은 전략을 파악해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빨라도 오후 5시에나 입찰에 참여할 것 같다"며 "해당 부서에서는 입찰에 필요한 준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경쟁사 동향에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찰 마감 이후에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간 물밑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제주도 면세점 허가 과정에서 관세청에 민원인을 가장한 투서가 수없이 접수되며 과열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너들이 면세점 사업에 관심이 크다 보니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권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쟁사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2일 서울지역(3개)과 제주지역(1개)에 오는 7월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겠다고 공고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은 대기업 2개, 중견·중소기업 1개 등 총 3개다. 관세청이 사업자로 선정한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시내 면세점을 운영한다.

면세점 선정 평가기준은 경영능력(300점)·관리역량(250점)·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HNT 하나투어리스트
하나투어리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특가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hanatourist.com
허니문
주말상담회
예비 신랑 ♥ 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 받으세요!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픈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빌딩 2층 (주)하나투어리스트
던킨 도너츠
농협은행
카페 7그램
공평 갤러리
하나투어 본사 2층
치킨뱅이
삼성생명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1호선 종각역 3번출구
피자헛
종각역
상담회 특전 |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님께 드리는 특전
❶ 현장 예약시 하나투어 40만 마일리지 제공(커플당) ※일부상품 제외
❷ 현장 예약시 토스터기+스타벅스 1만원 기프티카드 증정
소개 이벤트 | 결혼을 준비하시는 지인을 소개시켜주세요!
예약 성사시 소개시켜 주신 분께는 5만원 신세계 모바일상품권과
예약하신 커플께 5만원 하나투어리스트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입니다.
(허니문 예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동일혜택 적용)
사전 온라인 신청 필수 http://me2.do/FegLcydp
※ 소개이벤트 신청 후 주말상담회 참여 시 두가지 혜택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01 칸쿤/라스베이거스 8일
라이브아쿠아 비치웨딩+스냅 촬영
2,862,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6월~12월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달라스–라스베이거스(2)–달라스–칸쿤(4)–달라스
● 9월~11월 출발자 한정 라이브 아쿠아 칸쿤 호텔 4박 이상시, 하나투어 단독 비치웨딩 무료 제공
(~6월 4일까지 예약하시는 고객님께 무료 제공)
● 비치웨딩에 더불어 한국인 작가님과 고퀄리티 스냅촬영 1시간 제공
● 타사와는 차별화된 칸쿤 한국인 가이드 미팅/샌딩+공항 수속
02 파리/스위스 7일/8일
파리 야경투어
3,323,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9월~11월 매주 일,월요일 출발
● 파리(3)–인터라켄(2)–취리히(0/1)
● 2억원 여행자보험 가입
● 경력 5년이상의 스타가이드와 함께 관광(파리 1일+스위스 2일)
● 하나투어 허니문전용 테이블 및 예약제 운영 스위스 특식
● 세느강유람선과 야간 에펠탑 전망대 포함
03 오아후 6일/7일
쉐라톤 와이키키
2,743,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6월~12월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오아후(4)
● 와이켈레 아울렛 포함한 동부해안 섬일주
● 대한항공 이용시 쉐라톤 와이키키 전박 킹베드 개런티
● 사전 예약할인–커플당 120일전 40만원/90일전 30만원/60일전 20만원
●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 1인요금으로 동반자 무료혜택
● 현지 하나투어 투어라운지 운영
– 위급시 도움요청, 와이파이에그 대여, 할인쿠폰, 현지정보 제공 등
● 특식:메리엇 와이키키 호텔 내 쿠히오그릴뷔페 디너, 카후쿠새우트럭, 씨푸드뷔페 포함
04 푸껫 5일
르네상스 풀빌라 3박
1,000,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❶
▶6월~10월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푸껫(3)
● 여행용 캐리어 24인치 제공(커플1개)
● 커플 500바트 현지화폐 축의금 제공
● 1인 만원 추가시 $130상당 선택관광 포함
● 피피섬, 팡아만 관광 포함
예약 문의 02)2127-1234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선택경비(관광):있음/없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안전경보단계 : ❶여행유의 ❷여행자제 ❸철수권고 ❹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015.5.29. 업데이트 기준) ● 비자 :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 매너팁 :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음. ●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1993-000006호(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명소 만들어 놓고 홍보는 못하게

세빛섬, 어벤져스2 촬영지 못 알려 속앓이
보트사업도 홍보 못해… 행자부 '나몰라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강 스카이라인'에 이어 최근 서울시와 서초구가 손잡고 추진 중인 한강 '아트밸리' 등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사업은 과거부터 계속됐다. 하지만 '옥외광고법 등 관리법'의 제4조 규제 때문에 한강 사업자들은 사업을 홍보할 길이 막혀있는 상태다. 새로 한강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홍보방법을 걱정하며 사업 진입을 망설이고 있다.

'옥외광고법 등 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지정된 곳과 국토계획법에 의해 녹지지대로 지정된 곳에는 어떠한 옥외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다. 한강은 하천으로 지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한강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은 물론 그 근처에 현수막도 걸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개봉해 국내에서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어벤져스2'에는 '세빛섬'이라는 장소가 등장한다. 세빛섬은 '예빛섬'·'가빛섬'·'솔빛섬'·'채빛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섬에는 레스토랑·예식장·공연장·수상레포츠·카페 등이 있다. 지난해 10월 개장했다. 하지만 세빛섬을 방문하는 누구도 이곳이 어벤져스2의 촬영지인지 모른다.

옥외광고법에 의한 규제 때문에 어벤져스2의 촬영지라는 것은 물론 세빛섬을 홍보하는 입간판·현수막 등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법에 의하면 하천법상 하천이라 할지라도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선(汽船)·범선(帆船)은 선체 2분의 1은 홍보물설치나 부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빛섬의 경우는 동력이 없는 부선(艀船)이기 때문에 어떠한 홍보물의 부착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강에서 보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옥외광고법에 의한 규제 때문에 보트의 홍보는 물론 가격판 조차 설치하지 못한다. 보트 사업자 최모씨는 "홍보를 위해 전단지도 뿌려보고 했지만 정작 보트장에 와서는 정확한 정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설치물도 없어 고객에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A4용지 크기의 가격표를 구석에 붙인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을 위한 입간판도 세울 수 없어 외국인들이 한강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현재 완화된 부분은 광고물의 범위에 입간판·현수막 등의 '유동광고물'이 포함된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6월 1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에서만 관련 조례가 공포·시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의 한강 관광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미진한 상태다.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관계자는 "이러한 법(옥외광고법 등 관리법)규제로 인해 관광지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년 12월 해당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패션업계 2세, 해외경영 시험대 올라

세정과 미래 박이라 대표, '크리스 크리스티' 中 1호점 추진
블랙야크 강준석 이사, '나우' 인수·글로벌 상품 개발 박차

패션업계가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영 참여가 두드러진 2세들의 해외 성적이 시험대에 올랐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정과 미래는 올해를 목표로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 '크리스 크리스티'의 중국 1호점 오픈을 추진 중이다. 세정과 미래는 세정그룹의 계열사로 박순호 회장의 막내딸 박이라 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상해에 팝업스토어를 여는 등 시장 테스트를 마쳤으며 정식 매장을 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문제 없이 1호점을 내면 크리스 크리스티는 세정과 미래의 중국 진출 첫 브랜드가 된다.

세정과 미래 관계자는 "팝업 매장 운영 당시 반응이 좋아서 1호점 오픈을 얘기 중이다"며 "올해를 목표로 진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아웃도어는 역사가 짧은 만큼 2세들의 경영 활동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창업자인 1세가 국내 시장을 맡고, 2세가 해외 사업을 맡는 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추세다.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의 장남 강준석 이사는 회사 내 글로벌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입사한 이후 지난해부터 글로벌 사업본부 이사로 승진해 스키 브랜드 마운틴포스 사업을 주도하면서 업계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말 미국 브랜드 나우를 162억원에 인수하며 계열사 대표직을 꿰찼다. 나우는 북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브랜드다. 국내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제품을 우선 판매할 예정이다.

또 블랙야크는 지난 2월 독일에서 열린 '뮌헨 ISPO 2015'에 참여해 유럽 현지화 제품 라인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역시 강 이사가 맡아 진행했던 것으로 내년 론칭을 목표로 유럽 시장에 최적화된 '글로벌 컬렉션'의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식품업계 해외진출, 속빈 강정?

내수 포화·불황·규제로
공략 사활에도 적자 지속

식품업계가 내수 포화와 불황, 중기적합업종 지정 등의 각종 국내 악상황으로 활동 무대를 해외로 옮기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의 미국법인은 2012년에 140억원, 2013년에도 311억원, 지난해 1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매출은 590억원을 기록했지만 87억8900만원의 영업 손실을 보여 적자 폭이 57% 가량 커졌다. 풀무원은 2011년 해외 진출을 시작해 현재 해외에 10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불어나는 손실로 그룹 내 재무상태까지 발목을 잡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해외법인도 지난해 적자가 지속됐다. 가장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법인은 지난해 90억원, 미국법인은 46억원의 적자를 냈다. 베트남·싱가폴·하노이 법인에서도 각각 21억원, 38억원, 25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해외시장에서 베트남을 제외하고 4곳에서 손실을 보았다. 중국 27억원, 인도네시아 1억원, 일본 100억원 등의 손실이다. 제네시스 그룹의 치킨 브랜드 BBQ 역시 신통찮다. 중국·인도네시아 등 30개국에 해외 매장을 냈지만 지난해 50억원의 적자를 냈다. 글로벌 1등 프랜차이즈가 되겠다는 청사진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각 업체들은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공략을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시장은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해외시장에서 당장 성과가 없다고 그만 둘 수는 없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가 해외에 진출해 만년 적자에 시달리거나 수익 창출이 미미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해외시장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생각과는 달리 흑자전환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홈플러스 '수입맥주' 매출비중 40% 돌파

대형마트 수입맥주 점유율이 사상 첫 40%대를 돌파했다.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올해 1월부터 이달 28일까지 맥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수입맥주 코너에서 팔리는 수입맥주의 비중이 40.2%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홈플러스 맥주 매출에서 수입맥주의 비중은 2009년 12.1%에 불과했으나 2010년 15.4%, 2011년 18.2%, 2012년 22.9%, 2013년 30.4%, 2014년 32.8%, 올해 1~5월 40.2%로 늘었다.

대형마트·편의점 등 수입맥주 취급 소매점 증가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한·미, 한·EU FTA 등의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마트 측은 설명했다.

또 최근 주류시장에도 웰빙 바람이 불면서 저도수 주류의 인기가 높아진 것도 세계맥주 성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홈플러스 전체 주류 매출에서 맥주 비중은 2013년 48.8%, 2014년 50.0%, 올해 52.5%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소주는 2013년 16.3%에서 올해 16.2%로, 와인은 15.4%에서 15.1%로, 양주는 11.5%에서 9.3%로, 민속주는 5.3%에서 4.4%로, 과실주는 1.4%에서 0.9%로 매출 비중이 소폭 하락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경영인식 개선돼야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

|인터뷰| 이 영 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업보건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인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지난달 3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진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과 국제산업보건위원회가 주최했다.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감시체계 관련 직업병 연구 권위자인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레이몬드 에이지스 교수 등 120 개국 3400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자 건강 관련 연구 성과와 정책 등을 교류하게 된다. 이영순 이사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안전의식과 '국제산업보건대회'의 의미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다음은 이영순 이사장 일문일답)



-최근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회사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렇게 산업현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고가 반복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로 생각하기 보다는 '손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이 기업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돌아가고, 장수 기업이나 지속가능한 기업의 필수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우리 산업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250여 명이 부상하고, 5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일년으로 계산하면 한해 9만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이중 2000명 가까이 사망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2014년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재해자 수는 9만0909명이 발생했고, 이중 18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별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0.96%(73,599명)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공단의 산업재해 감소 목표는 무엇인지요.

"올해 공단의 경영목표는'사고사망만인율·사고 재해율·업무상질병 만인율을 전년 대비 5%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공단은 올해 산재예방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5가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둘째, 산재취약계층의 안전보건 확보입니다. 셋째,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근로자의 직업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섯째, 범국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기업들, 안전에 소요되는 돈 투자 아닌 '손실'로 인식해

5일까지 '국제산업보건대회' 각국 사고예방 노하우 공유

-6월 5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국제산업보건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 주시죠.

"국제산업보건대회는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가 3년마다 개최하는 산업보건분야 최대의 국제행사입니다. 1906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제 1회대회가 개최된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올해 대회 주제는 '산업보건의 글로벌 하모니 : 세계를 하나로'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안전보건 격차를 좁히는 통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대회는 학술 발표 뿐 아니라 안전보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기존 대회에는 없었던 정책 포럼이나 대표자 회의 등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산업보건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다루어지는 이슈는 무엇이고, 주목할만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 세계 근로자들이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안전보건 이슈를 망라해서 다루게 됩니다. 5일 동안 개발도상국의 산업보건, 업무상 사고예방, 여성 건강과 일 등 50여 개의 다양한 주제가 320여개 세션에서 다뤄집니다. 발표자만도 1700명에 이릅니다. 주목할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아시아 정책포럼'과 '글로벌 정책포럼'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서울성명서는 6월 5일 오후 2시 대회 폐막식에서 발표합니다.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며 주요 참석자들이 성명서에 서명합니다. 서울성명서는 전 세계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모든 기관들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실행과제 도출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산업보건의 글로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관광公 "필리핀 고소득층 잡아라"

현지 카드사·아시아나항공과 맞손

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지사장 박인식)는 필리핀 최대 신용카드사 Banco De Oro(BDO), 아시아나항공 마닐라지점과 함께 필리핀 고소득층의 방한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공동 프로모션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달 19일 한국관광 특별프로모션을 위한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6월 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진행된다. 항공권 판매는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프로모션의 핵심은 BDO 신용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아시아나 항공권과 베니키아 호텔의 특별 할인 혜택과 더불어 복수 입국비자 발급 등으로 필리핀 고소득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다. /최치선기자

이화의료원 "교직원 건강해야 병원도 건강"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지난달 28일 병원 로비에서 '교직원이 건강해야 병원이 건강해진다'는 슬로건 아래 '건강병원 선포식'(사진)을 개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헬스케어 파트너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협력업체 직원 건강 관리를 위한 세미나와 부서별 중간관리자들이 참여하는 '건강리더 워크숍', 교직원들의 스트레스 평가와 상담을 실시하고 오는 8월부터 감정노동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현명기자 hmbok@

강강술래 "광복 70주년… 뮤지컬 아리랑 쏜다"

보양식 최대 6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LG아트센터에서 상연되는 창작 뮤지컬 '아리랑' 공연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에 신청 댓글을 남기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티켓(1인2매)을 선물한다.



아리랑은 1000만부 판매 기록을 세운 작가 조정래의 대하소설을 뮤지컬화 한 작품으로 일제강점기, 파란의 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투쟁의 역사를 담아냈다.

한편 강강술래는 이른 더위에 지친 고객들을 위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10팩)는 60% 할인된 2만5200원에 판다. 갈비탕박스(500㎖·10팩)는 50% 할인된 3만5700원에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이달 15일까지 판매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잇츠스킨 '파워10 포뮬라' 체험 행사

잇츠스킨(대표 임병철)은 베스트셀러 고농축 에센스 '파워10 포뮬라'를 알리기 위한 3주간의 대대적인 행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IFC몰을 시작으로 다음달 6~7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강남 코엑스에서 각각 체험 행사를 한다. '그날 그날 당신의 피부에 필요한 고농축 에센스! 파워10 포뮬라'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됐으며 13종류의 에센스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



한눈에 보이는 옥외광고와 포토존을 통해 고객들의 관심을 끄는 호기심존, 13가지의 고농축 에센스 파워10 포뮬러 제품의 속성과 TV 광고 영상을 통해 제품의 정보를 재미있게 알리는 체험존과 이색 플래시 게임과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증정존으로 구성했다. /김수정기자

제주서 터 잡고 길 닦는 수입차들

1분기 제주도 수입차 판매대수 54%↑
BMW·폭스바겐 등 전시장 개장·확대







왼쪽부터 BMW MINI 컨트리맨, New 푸조 308 1.6, 올 뉴 크라이슬러 200.

수입차 브랜드가 제주도를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에 기업의 이전과 개인 이주가 늘며 새로운 수입차 시장이 열렸다는 평가다.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 브랜드들은 제주도에 전시관을 열고 푸조·시트로엥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자동차 박물관 개관 계획을 밝혔다.

3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도의 수입차 판매 대수는 총 920대로 작년 동기(597대) 대비 54% 증가했다. 제주도 내 등록된 누적 수입차 대수는 2007년 처음으로 1000대를 넘어섰다. 이후 2010년 1756대, 2012년 4714대, 2014년 9330대로 10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 3월 기준 제주도 내 수입차는 총 1만161대로 사상 처음 1만대를 넘어섰다.

수입차 브랜드는 이에 발맞춰 전시장을 열거나 확대하는 등 제주도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5월 BMW·MINI의 공식 딜러인 도이치모터스는 제주시 연삼로에 문을 열었다. 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사장은 "제주 지역의 고객에게 BMW와 MINI의 구매부터 정비까지 한 번에 아우르는 프리미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닛산·포드 등 공식 딜러들도 잇따라 매장을 열어 2010년 1개에 불과하던 제주도의 수입차 전시장은 2년 사이 7개까지 늘어났다.

크라이슬러와 피아트 등의 판매를 담당하는 FCA 코리아는 지난달 'FCA 제주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를 확장했다. FCA 코리아 측은 "FCA는 2008년 수입차로서는 가장 처음 제주도에 전시장을 세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여타 수입차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푸조·시트로엥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제주도에 약 3만3000㎡(1만여평) 규모의 푸조·시트로엥 종합 콤플렉스를 준비 중이다.

송승철 한불모터스 사장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불모터스 본사에서 언론 초청행사를 열고 제주도에서 렌터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는 서귀포 1만 여평 부지에 푸조·시트로엥 박물관을 조성하고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함께 오픈할 계획이다.

송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에서 푸조·시트로엥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현대차, 동호회와 오지마을서 이동식 영화관 펼쳐 현대자동차는 연합동호회 '현대모터클럽'과 함께 강원도 정선군 대촌마을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31일 현대차는 19개 차종의 동호회 운영자를 포함한 현대모터클럽 동호회원 등 100여명이 전날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현대차 제공

스마트 기능 장착… '스마트카 요금제' 나올까

특정관련기기 필요 등 제약·조건 뒤따라



국내외 유수 자동차 업체들이 신차에 LTE모뎀, 무선충전장치, 인포테인먼트 기능 등의 스마트 기술을 장착시키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기존 스마트폰 요금제와 더불어 스마트카 요금제까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1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올 뉴 투싼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출시될 신차에 LTE모뎀이 적용된다. 2년 무료 이용기간이 끝나면 월별 요금이 부과된다.

올 뉴 투싼에 장착된 LTE모뎀으로 운전자들은 실시간 교통정보나 차량 원격 진단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원하는 목적지가 내비게이션에 없는 경우 LTE 모뎀이 스스로 지역검색을 활용해 목적지를 검색할 수 있다.

현대차 대리점 관계자는 "현재 블루링크 기능 적용 모델은 올 뉴 투싼 모던과 프리미엄이고 옵션 가격은 145만원이다"며 "무상 이용 기간이 끝나면 매달 1만1000원의 요금이 청구 된다고 세일즈 가이드라인에 명시돼있다" 고 말했다.

이 내비게이션 기능은 운전자가 블루링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차와 연동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새롭게 변경·추가된 주소 때문에 장착된 기본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 설정이 불가할 경우, 블루링크로 목적지 검색을 하면 네이버 지도 앱이 블루링크와 연동돼 기본 내비게이션으로도 목적지 안내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대차의 다양한 신기술 탑재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도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시동·문 잠금 등의 기능들도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기아자동차 신형 K5에는 무선충전기능이 탑재됐지만 관련 기기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쉐보레 스파크에는 애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카플레이가 탑재돼 아이폰5 이상을 소유한 운전자들이 차에 USB를 연결해야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신차들이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보유했지만 이용을 위해선 여러 제약과 조건이 전제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에 장착된 스마트 기능은 특정 기기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어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실용적인 기능만을 살리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자동차 업체에게 중요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내 차 팔때 신속 처리가 중요"

소비자들이 타던 차를 매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높은 가격보다 빠른 상담과 방문진단을 통한 신속한 매각 처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SK C&C 엔카사업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차를 팔 때 신속함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

SK C&C 엔카사업부가 지난달 소비자 213명을 대상으로 '내 차 팔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속함이 38%로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오래 끈다고 좋은 가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차를 파는 일에만 계속 매달릴 수 없으니 빠른 처리가 중요하다", "요즘 매입 서비스는 하루 만에 차량 진단, 송금, 차량 인도까지 해주니 편하다"고 답했다.

최근 생겨나고 있는 다양한 중고차 매입 서비스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신속함이다.

2위는 '높은 가격'(29.1%)이 차지했다. 이어 '친절한 서비스'(3위, 19.2%)와 '브랜드 인지도'(4위, 13.6%)가 뒤를 이었다.

박지원 SK엔카 매입본부장은 "소비자들이 차량 매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신속한 매각 처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SK유레카는 차주의 시간과 노력, 차량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내 차 팔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기자 roman@

기아차, 카니발 9인승 가솔린 모델 출시

기아자동차는 카니발 9인승 가솔린 모델을 내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카니발 가솔린 모델의 가격은 9인승 디젤 노블레스 모델보다 140만원 저렴한 3510만원에 책정됐다.

카니발 9인승 가솔린 모델은 'V6 3.3 람다Ⅱ GDI 엔진'을 장착해 우수한 동력성능과 정숙함을 동시에 구현했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7인승 리무진 모델의 고급 실내사양을 적용해 실내공간의 품격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카니발 9인승 가솔린 모델의 최고출력은 280마력, 최대토크는 34.3kg·m이며 복합연비는 8.3km/ℓ다.

이 모델을 구매하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주행 ▲사업자 부가세 환급 ▲개별소비세 면제 등 9인승 차량의 장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기아차는 지난 3월 7인승 리무진 출시 당시 선보인 가솔린 모델의 인기에 힘입어 9인승 가솔린 모델도 출시해 카니발의 라인업을 확장했다.

기아차는 "특히 가솔린 모델은 정숙성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9인승 차량의 장점을 모두 원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용기기자



더 록, 따뜻한 아버지로 돌아오다

영화 '샌 안드레아스'

드웨인 존슨



더 록(The Rock). 드웨인 존슨(43)이 프로레슬링 WWE에서 활동할 때의 이름이다. 남성미가 넘쳐나는 그 이름은 드웨인 존슨을 표현하는 전부와도 같다. 근육질 히어로다.

배우로서도 드웨인 존슨은 프로레슬러의 이미지를 영리하게 이용했다. '미이라' '분노의 질주' 시리즈, 그리고 '지.아이.조2' 등 주로 액션영화에서 영웅적인 캐릭터를 연기한 것이 그렇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걸어온 길을 21세기에는 드웨인 존슨이 걷고 있다.

그러나 오는 3일 개봉하는 영화 '샌 안드레아스'에서는 드웨인 존슨의 달라진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그는 이번 영화에서 구조대원이자 이혼을 앞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이 있는 평범한 남자인 레이 역을 맡았다.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흔치 않은 현실에 발 붙은 캐릭터다.

> 프로레슬러 출신 근육질 영웅
> 신작서 인간적인 아버지 변신
> 실제 경험으로 부성애 표현해
> 다시 태어난다면 배우 택할 것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샌 안드레아스'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드웨인 존슨을 만났다. 브래드 페이튼 감독, 주연 배우 칼라 구기노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그는 예의 변함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웃음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등 5개국에서 온 200여명의 기자들을 반겼다.

'샌 안드레아스'는 드웨인 존슨과 브래드 페이튼 감독이 두 번째로 같이 작업한 작품이다. 이들은 2011년 영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2: 신비의 섬'으로 만난 바 있다. 전작이 액션 어드벤처였다면 이번에는 재난영화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재난영화에 처음 도전한 드웨인 존슨은 "액션영화는 항상 나쁜 캐릭터가 있다. 그러나 이번 영화에는 악당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극중 레이는 현실감 있는 인물이다. 다른 인물들에 비해 능력은 뛰어나지만 결국에는 인간적인 캐릭터다. 현실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이를 해소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고 전작들과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영화는 둘째 딸의 죽음 이후 소원해진 관계 속에서 이혼의 위기를 맞이한 레이와 아내 엠마(칼라 구기노), 그리고 첫째 딸 블레이크(알렉산드라 다드다리오)의 이야기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진도 9의 강진으로 맞은 재난을 이겨내면서 가족끼리의 갈등도 극복해간다. 실제로 이혼 경험이 있으며 13세가 된 딸이 있는 드웨인 존슨으로서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설정이다.

특히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레이와 블레이크의 관계는 아버지로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그는 "나는 딸을 매우 사랑한다. 하지만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때때로 갈등을 겪는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더욱 레이에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화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 역시도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부성애를 보여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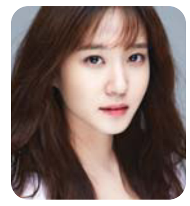
근육질의 영웅 캐릭터로 할리우드 스타가 됐지만 오히려 이 점이 배우로서는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대중이 한 가지 이미지로만 그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웨인 존슨은 "다시 태어난다면 프로레슬러보다 배우를 선택할 것"이라며 배우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나타냈다. 그는 다른 연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배우를 꿈꾼다.

"지금까지 배우 생활을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배역을 하고 싶어요. 재난영화든 드라마든 코미디든 어떤 장르도 좋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연기만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과 강인함을 갖고 연기하는 배우로 관객의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베이징(중국)=장병호기자 solanin@
사진=워너 브러더스 코리아

star bag

문근영·신세경과 한솥밥



배우 **박은빈**이 문근영·신세경 등이 소속돼 있는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나무엑터스 측은 "박은빈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연기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온 배우"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박은빈은 최근 SBS 드라마 '비밀의 문'에서 혜경궁 홍씨 역으로 열연을 펼쳤다.

재능기부로 영화 출연



배우 **서신애**가 독립영화 '오월'(가제)에 재능기부로 출연한다.

'오월'에서 서신애는 가수가 꿈인 톡톡 튀는 성격의 고등학생 정나연 역을 맡아 언니 정다정 역으로 출연하는 이다희와 호흡을 맞춘다. 영화는 2016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리페스티벌 출품작으로 현재 막바지 촬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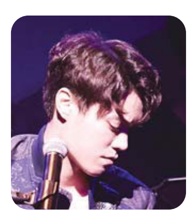


日 오리콘차트 1위 석권

그룹 **비스트**가 일본에서 발표한 새 싱글 '캔트 웨이트 투 러브 유(Can't Wait To Love You)'가 지난 29일 발매 첫날 오리콘차트 싱글 데일리차트 1위에 올랐다.

일본 팬미팅에서 처음 공개돼 뜨거운 반응을 얻은 노래다. 한편 비스트는 30일 홍콩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단독 공연 성황리 개최



가수 **에디킴**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서울 이태원의 '언더스테이지'에서 데뷔 1년 만에 연세 번째 단독 콘서트 '렛츠 싱싱싱(Let's Sing Sing Sing)'을 성황리에 마쳤다.

에디킴은 공연을 마친 뒤 "기억에 남을 공연"이라며 "재미있게 놀았다. 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하나와 앨리스: 살인사건' '쥬라기 월드'.

30년 만의 속편… 스크린의 전설 귀환

'매드맥스4' '하나와 앨리스: 살인사건' '쥬라기 월드' 등 원작 고유의 주제와 정서·발전된 기술로 관객 사로잡아

영화는 끝나도 영화가 만들어낸 세계는 끝나지 않는다. 스크린을 통해 만난 사람과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곧 영화가 지닌 매혹이다. 긴 세월이 흘러 다시 제작된 시리즈 영화들이 최근 극장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다룬 조지 밀러 감독의 걸작 시리즈의 신작이다. 30년 만에 선보인 속편으로, 70대 노감독이 메가폰을 다시 잡았다는 점에서 작품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했다.

그러나 영화는 기존 시리즈의 세계관을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더욱 발전한 영화 기술을 차용함으로써 완벽에 가까운 속편으로 탄생했다. 로케이션 촬영과 CG를 최대한 배제한 아날로그 촬영기법으로 담은 카체이싱, 여기에 퓨리오사(샤를리즈 테론)라는 독보적인 여성 캐릭터의 활약으로 영화는 평단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국에서도 개봉 이후 입소문과 함께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까지의 누적 관객수는 272만여 명이다.

'하나와 앨리스: 살인사건'은 일본 이와이 슌지 감독이 자신의 대표작인 '하나와 앨리스'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두 주인공 하나(스즈키 안)와 앨리스(아오이 유우)의 첫 만남을 다뤘다. 이와이 슌지 감독은 중학생 시절을 연기할 수 없게 된 두 배우를 성우로 기용해 3D CG와 실제 촬영한 영상을 프레임 위에 덧붙여 그리는 로토스코핑 기법의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를 완성시켰다.

이와이 슌지 감독은 "내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와 앨리스가 있었다. 새로운 영화를 만든다기보다 전작에서 미처 찍지 못한 부분을 찍은 것과도 같다. 마치 멈춰있던 것을 다시 움직인 듯한 느낌"이라며 10년 만에 프리퀄을 만들게 된 이유와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내서 개봉한 영화는 다양성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오는 11일 개봉하는 '쥬라기 월드'는 14년 만에 부활한 '쥬라기 공원' 시리즈 신작이다. 1편과 2편을 연출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 총괄을 맡아 22년 만에 시리즈에 참여했다.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새로운 종의 공룡의 등장을 예고해 궁금증을 갖게 한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훌륭한 스토리의 힘은 22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며 "오늘날의 발전된 기술과 스태프들의 재능으로 이 시리즈를 다시 선보이는 것에 대해 제작자로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업그레이드

서거 125주기 기념… 6일부터 충무아트홀 무대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찬란했던 삶과 영혼을 담은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가 반 고흐 서거 125주기에 맞춰 업그레이드된 작품으로 관객들과 마주한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2014년 초연 당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명화의 첨단영상과 무대의 색다른 조화로 화제를 모았다.

6월 6일~8월 2일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에서 펼쳐지는 올해 무대는 그의 서거 125주기를 맞아 초연 당시에 선보이지 않았던 넘버와 영상들을 공개한다.

동생 테오가 세상을 떠난 반 고흐에게 전하는 이야기로 작품의 시작을 알리는 넘버 'To.빈센트 반 고흐'가 새롭게 추가되고, 지난해 사용하지 않았던 '카페 테라스' '밤의 카페'와 같은 명작들은 극 중 실제 반 고흐가 머물렀던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화가로 살았던 10년 동안 한결같이 반 고흐에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동생 테오와의 돈독한 형제애를 더욱 부각시킨다. 연출 김규종·작곡 선우정아, 출연 김경수·김보강·조형균·김태훈 등. 문의: 02) 588-7708

/김민준기자 mjkim@

CJ E&M, 동남아 진출 속도

태국 현지 합작회사 설립

CJ E&M이 태국 현지에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동남아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CJ E&M은 "지난 27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극장 사업자인 메이저 시네플렉스 그룹(Major Cineplex Group)과 '영화 투자 제작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메이저 시네플렉스 그룹은 태국 내 스크린 점유율 60%의 1위 극장 사업자로 극장 사업, 영화 제작과 배급 외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레저 기업이다.

태국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합작 회사는 현지에서 영화 투자와 제작 사업을 벌인다. CJ E&M의 기획과 마케팅 능력, 그리고 메이저 그룹의 제작 능력과 극장 배급망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장병호기자

★ 감독들이 돌아온다

이달 초부터 임상수·곽경택·최동훈 신작 러시

6월 초여름을 시작으로 스타 감독들이 극장가에 복귀해 주목된다. 임상수, 곽경택, 최동훈 감독이 그 주인공이다.

임상수 감독은 '나의 절친 악당들'로 오는 25일 극장가를 찾는다. '돈의 맛' 이후 3년 만의 신작이다. 의문의 돈가방을 손에 넣은 지누(류승범)와 나미(고준희)가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진짜 악당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임상수 감독은 "'돈의 맛' 이후 젊은 친구들에게 위로와 힘이 돼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며 "요즘은 젊은이들이 움츠러들어서 살아야 하는 시대인데 이 영화로 그들에게 가슴을 벅차게 하는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친구' '태풍' 등을 만든 곽경택 감독은 1주일 앞선 18일 '극비수사'를 선보인다. 1978년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으로 유괴된 아이를 사주로 찾은 형사와 도사의 33일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김윤석과 유해진이 각각 형사 공길용과 도사 김중산으로 호흡으로 맞췄다.

곽경택 감독은 "'친구2'를 준비하기 위해 부산 조직 폭력배들의 에피소드를 취재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사건을 접하게 됐다"며 "실제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치는 재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2012년 '도둑들'로 1000만 클럽에 가입한 최동훈 감독은 오는 7월 '암살'을 들고 관객과 만난다.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비밀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독립군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전지현·이정재·오달수·하정우·조진웅 등 호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최동훈 감독은 크랭크업 당시 "지금껏 촬영했던 영화와 다른 작품이라 촬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그러면서도 무척 즐거웠다"며 "훌륭한 배우들과 작업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다.

/장병호기자



왼쪽부터 임상수·곽경택·최동훈감독


세븐에이트
동성제약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전, 오늘 세븐에이트 해요"
세븐에이트 전속모델 l 탤런트 차 화 연
편하고 부담없이 자연스러운 느낌 – 세븐에이트
새치커버는 물론 스타일리시한 헤어컬러까지~ 최신 트렌드에 맞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
4호 (자연스런 밤색) 5호 (진한밤색) 6호 (자연스런 갈색) 7호 (자연스런 흑갈색)
스타일에 따라
용도에 맞게 골라 쓰세요
l 세븐에이트 헤어 마스카라 l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l 세븐에이트 편한염색
l 세븐에이트 실키 칼라크림 l 세븐에이트 쉬운염색 l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 스프레이
l 소비자상담실 l 080–547–3571 l 세븐에이트는 가까운 약국,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열애부터 결혼까지… '신비주의' 끝판왕

이나영·원빈 깜짝 결혼… 가족·지인들과 소박하게 치러

아무도 예상 못한 결혼이었다. 최근 불거진 결혼설을 부인한지 10여일 만에 들려온 결혼 소식에 팬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배우 이나영(36)과 원빈(37)은 지난달 30일 원빈의 고향인 강원도 정선의 한 밀밭 오솔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두 사람의 소속사 이든나인은 "결혼식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원빈의 고향 들판에서 열렸다"며 "5월의 청명한 하늘 아래 푸른 밀밭을 걸어나와 평생을 묵묵히 지켜본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 서약을 나눴다"며 결혼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2012년 이나영이 이든나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인연을 맺게 됐다. 이든나인은 원빈이 2011년 8월에 세운 연예 기획사다. 같은 소속사 식구였던 둘은 2013년 7월 한 매체를 통해 데이트 장면이 보도되면서 열애를 인정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좀처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연애를 즐겼다. 두 사람의 활동이 뜸한 탓에 열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드물었다. 신비주의를 고수하던 두 사람은 결혼식마저도 극비리에 진행했다. 연예계 동료나 관계자는 초대하지 않은 대신 가족과 지인들만 초대해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소속사 측은 "가족들의 요청으로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며 결혼을 비밀리에 준비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의 결혼설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치르기를 원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혼식 분위기는 스타 커플의 결혼식치고는 무척 소박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족들 앞에서 경건하게 결혼서약을 나눴으며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가마솥을 걸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국수를 나눠 먹었다.

결혼설과 함께 불거졌던 임신설은 다시 한 번 부인했다. 소속사 측은 "결혼 이후에는 되도록 빨리 2세 소식을 기다리겠지만 그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가 된 이나영과 원빈은 각자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접 살림은 서울 방배동에 마련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이나영


원빈

TV 하이라이트

방송 첫 4대 냉장고 등장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힙합 조상님 지누션 2탄. 이번엔 사랑꾼 션의 냉장고를 공개한다. 셰프들도 입이 벌어진 '냉장고를 부탁해' 사상 최대 규모인 4대의 냉장고가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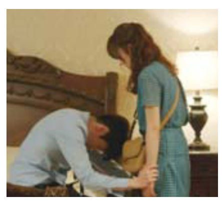
제대로 각 잡힌 냉장고 속은 위생교육 교과서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 '육아의 신' 션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요리'와 '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요리'를 주문한다.

샘킴과 미카엘이 아이들을 위한 요리로, 최현석과 정창욱이 아내를 위한 요리로 대결을 펼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tvN '식샤를 합시다2' 오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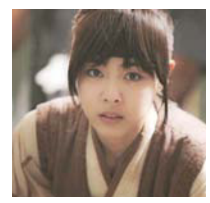
오늘의 메뉴는 막걸리와 모듬전, 대하구이다. 상우(권율)는 수지(서현진)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인다. 수지는 이에 상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괴로워한다. 대영(윤두준)은 수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두 사람 사이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 10분

'독거테리우스' 신성우, 남친돌 'B1A4'의 신우, '빅스'의 켄이 초대손님으로 출연한다. 지난 주 1승을 차지한 '밀고 싶어라'가 2승을 노리는 가운데, 7년간 남편이 씻는 꼴을 못 봤다는 주부, 친구가 잠이 많아서 졸음 운전 때문에 제 명 못살겠다는 남자, 집착하는 누나 때문에 괴로운 소년이 도전장을 내민다.



◆ MBC '화정' 오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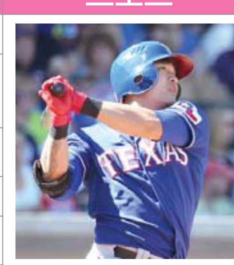


주선(조성하)과 허균(안내상)은 광해(차승원)의 약점을 찾으려 동분서주한다. 인목대비(신은정)는 정명(이연희)의 생사여부에 다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정명의 정체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한다. 한편, 광해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고도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 (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51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발명이 팡팡!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영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루기	50 오늘부터 사랑해 (41회)	15 불굴의 차여사 (102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119회)	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재)	10 곰디와 친구들(한국어)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16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5회)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딱 너 같은 딸 (11회)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절대비법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스타강사특강
22시	00 가요무대	00 후아유 – 학교 2015 (11회)	00 화정 (15회)	00 풍문으로 들었소 (29회)	45 달라졌어요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쉰들러 리스트1>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10주년 진실이 엄마 2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20 해외걸작드라마 삼총사 시즌2 (8회)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특파원 현장보고 (재)	20 MBC 뉴스 24 4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5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유자식상팔자 (103회)		10 한식대첩 3 (1회)			
19시	55 JTBC 뉴스룸	40 리틀빅 히어로 (37회) (재)	30 두 남자의 캠핑쿡 (1회)	00 쇼킹 70억 (9회)	50 사이코 메트리	
20시	50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65회)	00 오늘 뭐 먹지? (67·66회)	00 기생PARASITE 1부 보이지 않는 손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29회)	40 촉촉한 오빠들 (2회)	15 한식대첩 3 (2회)	00 <맨 헌트> 카메룬 바카족의 사냥법		
22시			30 한식대첩 3 우승자 레시피 (2회) 40 오늘 뭐 먹지? (67·39회)	00 라이프 해킹 (5·6회)	00 월드 워 Z	
23시	00 비정상회담 (48회)	00 식샤를 합시다 2 (17회)	50 샘킴의 함께쿠킹 (7·8회)	00 <사상 최악의 참사>진주만 공습		◆ 해외야구 03:15 LAD vs 세인트루이스
24시	30 화이트 스완 (1회)	20 코미디 빅리그 (123회) (재)	20 2015 테이스티로드 (8회)	00 <극한직업>유리제조공	20 아드레날린 24	04:05 보스턴 vs 텍사스 10:10 피츠버그 vs 샌디에이고

‘윤덕여호’ 최강 미국과 팽팽한 무승부

여자월드컵 마지막 평가전 합격점… 16강 진출 ‘청신호’



31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박희영이 알리 크리거와 볼을 다투고 있다.
/AP 연합뉴스

‘윤덕여호’가 최강 미국 대표팀을 맞아 무승부를 거두며 여자 월드컵 사상 첫 16강 진출의 청신호를 밝혔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과의 월드컵 본선 전 마지막 평가전에서 한국 여자대표팀은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세계 최강으로 손꼽히는 미국 대표팀과 비김으로써 8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본선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특히 주전을 그대로 기용한 미국의 파상공세를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수비력이 돋보였다. 비록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유영아 원톱과 공격의 중심인 지소연의 호흡도 합격점이었다.

미국 여자 대표팀(피파랭킹 2위)은 지금껏 열린 6차례 월드컵에서 모두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뒀고 1991년 중국, 1999년 미국 대회를 제패했으며 올림픽도 3회나 우승한 강팀이다. 미국과의 경기에서 주눅 들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한 윤덕여호는 이로써 12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월드컵에서 16강에 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이날 공격진에는 유영아(현대제철)가 원톱에, 그 뒤를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뒷받침했다. 좌·우 양쪽에는 박희영(스포츠토토)과 강유미(KSPO)가 맡았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베테랑 권하늘(부산상무), 조소현(현대제철)이 나섰다. 수비 포백 라인은 김수연(KSPO), 김도연(현대제철), 심서연(이천대교), 김혜리(현대제철)가 섰다.

미국은 공격진에 주전 투톱인 애비 웜바크와 시드니 르루를 그대로 투입해 홈 팬들 앞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의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초반 공세는 오히려 한국의 몫이었다. 지소연을 필두로 유영아와 좌우 날개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경기를 주도했다. 미국은 이들의 공세에 밀려 전반전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윤덕여 감독은 후반에는 보다 적극적인 수비 전술로 미국에 맞섰다. 포백에서 스리백으로 전환해 수비를 두텁게 했다. 후반 8분 수비수 황보람(이천대교)의 실수로 한 차례 슈팅을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완벽한 수비력을 선보였다.

한국은 오히려 경기 종료 직전 이금민(서울시청)이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서 쏜 회심의 중거리 슈팅으로 2만6000여 명의 미국 홈팬들을 놀라게 했다. 미국의 ‘백전노장’ 솔로 골키퍼가 가까스로 걷어내지 않았다면 곧바로 골로 연결 될 정도로 강력한 슈팅이었다.

한국은 오는 9일(한국시간) 오전 8시 피파랭킹 7위의 강팀 브라질과 E조 조별예선 첫 경기를 갖는다. 브라질은 월드컵에선 준우승만 한 차례 했지만, 남미 대륙간컵에서는 한 차례 준우승을 제외하고 모조리 우승했을 정도로 강한 팀이다. E조는 ‘1강(브라질)-2중(스페인, 한국)-1약(코스타리카)’로 평가된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31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 누에서 열린 스페인 국왕컵 코파 델 레이 결승전.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메시 2골… 바르셀로나 국왕컵 우승

트레블 2연속 달성 ‘관심’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리오넬 메시의 멀티골을 내세우며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우승을 차지했다.

바르셀로나는 31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 누에서 열린 코파 델 레이 결승에서 아틀레틱 빌바오에 3-1로 승리했다.

메시의 활약이 눈부셨다. 메시는 전반 20분 상대 수비 4명을 제치고 왼발 슛으로 골문을 갈랐다. 바르셀로나는 햄스트링 부상을 했던 수아레스까지 출격해 ‘MSN(메시-수아레스-네이마르)’라인을 가동해 빌바오를 압박했다.

바르셀로나의 추가골은 네이마르에게서 나왔다. 네이마르는 전반 36분 수아레스의 패스를 받아 골대 정면에서 오른발로 공을 차넣으며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이어 메시는 후반 29분 멀티골을 완성하며 국왕컵 우승을 자축했다. 빌바오는 후반 34분 만회골을 넣어 영패를 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리그 우승에 이어 스페인국왕컵까지 차지한 바르셀로나는 다음 달 6일 이탈리아의 명문 유벤투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맞붙는다.

바르셀로나가 유벤투스까지 꺾으면 최근 6년 동안 두 번의 트레블(리그·스페인국왕컵·유럽챔피언스리그 3관왕)을 달성하게 된다. 유럽 축구 역사상 대륙 클럽대항전 우승컵을 포함한 트레블을 이룬 팀은 바르셀로나를 포함해 7개 팀 뿐이다. 트레블을 2번 달성한 클럽은 없다. /장병호기자 solanin@

블래터 5선 성공에 세계 갈등 증폭

미·영 VS 러·중동 신경전… 월드컵 조 추첨 보이콧 가능성

국제축구연맹(FIFA) 비리 스캔들 의혹의 ‘몸통’인 제프 블래터가 FIFA 회장 5선에 성공함에 따라 스포츠 외교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은 블래터 회장의 당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세를 잇고 있지만, 차기 월드컵 개최 예정지인 러시아와 중동은 블래터를 지지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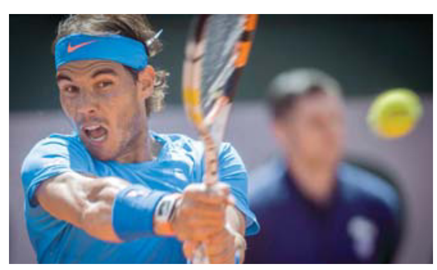
미국 검찰은 블래터의 비리 의혹에 더욱 더 올가미를 조이고 있다. 이미 기소된 잭 워너 전 FIFA 부회장이 남아공으로부터 월드컵 유치를 돕는 대가로 1000만 달러(약 111억원)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이 돈이 FIFA 계좌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승인한 고위 관계자가 블래터라고 믿고 있다.

영국 왕실도 ‘블래터 때리기’에 팔을 걷고 있다. 윌리엄 왕세손은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 앞서 FA 명예회장 자격으로 “스폰서와 지역축구연맹 등 FIFA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FIFA의 개혁을 압박해야 한다”며 FIFA 후원사들의 실력행사를 촉구했다.

반면 차기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러시아와 중동은 블래터를 지지하는데 입을 열었다. 미국 검찰의 사건 개입을 맹비난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블래터 회장에게 5선을 축하한다는 전보를 보냈다. 쿠웨이트 출신의 셰이크 아마드 알 파드 알 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FIFA 간부 전격 체포는 할리우드 스타일”이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한편, FIFA는 7월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018 월드컵 예선 조추첨 행사를 개최키로 했지만, 갈등이 심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하는 국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희철기자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라파엘 나달, 16강 안착



프랑스오픈 디펜딩 챔피언 라파엘 나달(스페인·7위·사진)과 세레나 윌리엄스(미국·1위)가 가뿐히 16강에 안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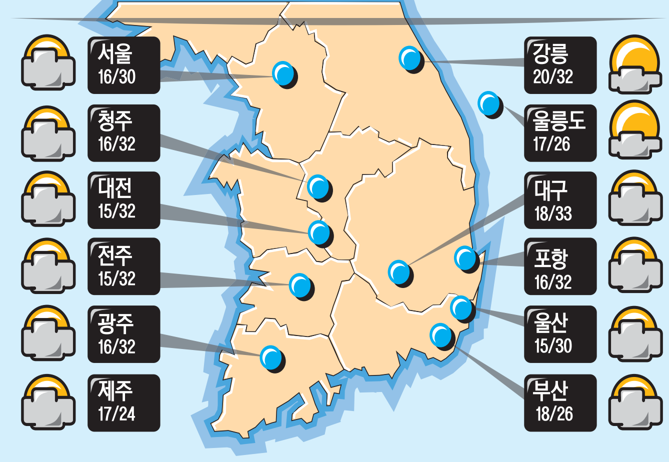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 드 롤랑가로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2802만8600 유로) 7일째 남자단식에서 대회 연속 우승과 10번째 우승을 노리는 디펜딩 챔피언 라파엘 나달이 안드레이 쿠즈네초프(120위·러시아)를 3-0(6-1 6-3 6-2)으로 가볍게 꺾으며 16강에 올랐다.

나달이 16강 상대 잭 소크(37위·미국)를 이기면 8강에서 노박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를 만나고 4강에서는 앤디 머리(3위·영국)와 차례로 맞붙을 가능성이 커 빅매치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희철기자

날씨

6/1 월 일출시각 05:13 일몰시각 19:4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Anthrax Exposed to 22 Lab Workers…No Infection

<주한미군 "22명 실험요원 탄저균 노출…감염자 없어">

A live anthrax sample had been accidentally sent from a Defense Department laboratory in the United States to an American military base in South Korea, and it became known that 22 personnel were exposed to anthrax.

The Pentago said that "it has been safely destroyed, and one sample of anthrax was also sent to the 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Program at Osan Air Base."

If this enters human body, it destroys the blood cells and cause shock which can lead to death. Therefore, it is strictly prohibited conveying live anthrax.



녹색연합·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살아있는 탄저균 국내 반입 규탄기자회견이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 복장을 한 참가자 한국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든 상자를 전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군 연구소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살아있는 탄저균에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 측은 탄저균을 안전하게 폐기 처분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지난 27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표본의 노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생물학무기로 쓰이는 병균인 탄저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침입하면 독소를 생성해 혈액내의 면역 세포를 손상해 쇼크를 유발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때문에 탄저균은 살아있는 상태로 옮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PAGODA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8	2		5	1
	2			1			4	6
					6	8		
	6					4		3
1		3					9	
		7	9					
5	9			6			8	
4	1		2	7		5		

	7		4		8			6
		8		9				
5						8		
		1			3	6	9	
7	4						8	1
	3	5	1			2		
		7						2
				2		1		
6			8		1		3	

스도쿠 정답

3	4	6	7	8	2	9	5	1
8	2	9	3	1	5	7	4	6
7	5	1	4	9	6	8	3	2
9	6	5	8	2	1	4	7	3
2	7	4	5	3	9	6	1	8
1	8	3	6	4	7	2	9	5
6	3	7	9	5	8	1	2	4
5	9	2	1	6	4	3	8	7
4	1	8	2	7	3	5	6	9

2	7	3	4	1	8	9	5	6
4	6	8	5	9	2	7	1	3
5	1	9	3	6	7	8	2	4
8	2	1	7	4	3	6	9	5
7	4	6	2	5	9	3	8	1
9	3	5	1	8	6	2	4	7
1	8	7	9	3	4	5	6	2
3	9	4	6	2	5	1	7	8
6	5	2	8	7	1	4	3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팍팍한 연봉… 노후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년 부동산 변동… 사업보다 직장 다니시길

황금사과 여자 67년 8월 2일 음력 21시경

Q 3주전쯤 돌고래가 바다를 헤엄치는 꿈을 꿨는데 전세를 준 집은 수리비 청구를 하고 몇 년 만에 월급인상에선 근무시간은 늘고 겨우 몇 만원 올랐네요.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하는 처지라 막막합니다. 이직하고 싶은데 인정도 받고 맘편히 일 할 수 있는 곳이 생길까요. 전세집도 수리비 들어가고 적자라 팔고 싶은데 언제쯤 팔아야 손해 없이 팔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변에서 힘들어하니까 늦게라도 결혼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이성에 관심이 없어요. 대체 뭘 해야 노후까지 생활비를 벌 수 있을 지요. 돌고래 떼가 바다를 헤엄치는 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 '샘이 솟는 바위'의 형상으로 광천수와 같아 일생 무난합니다. 돌고래 꿈은 부와 명예, 권력을 의미하고 큰 인물을 뜻하므로 태몽으로 볼 때 선머슴 같은 딸이나 아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돌고래 꿈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꿈속에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가에 따라 해몽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돌고래에게 쫒기거나 돌고래를 해하거나 쫒아 내버리는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길몽이 아니라 흉몽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몽한 내용은 귀하가 재해석을 해보아야 보다 분명한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요. 꿈의 길흉에 대한 관심을 쏟기보다는 꿈이 의미하는 바를 유추하여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놓은 집이 팔릴 수 있는 것은 인수(印綬:나를 생해주는 오행)운이 들어오는 8월과 4월이 될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것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이 다른데 있습니다. 귀하는 생일지(生日支)에 장생궁(長生宮:갓태어나 성장을 시작하는 길운)을 놓고 있으며 태극귀인(太極貴人)에 해당되어 태극은 시종(始終)을 의미 하며 종래성과를 거두는 길명입니다. 중년 이후 타향에서 득명하고 해외와도 인연이 있는데 외화내빈으로 귀부인의 상이지만 내면에 곤고(困苦)함이 있습니다. 편관(偏官:나를 극하는 오행)과 비견(比肩:나와 동급의 오행)이 왕성한 결합은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 사물의 양면을 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문서운이 들어와 부동산의 변동이 있으며 굳이 사업을 하신다면 평생 빚에서 허덕이게 되니 직장에 차분히 꾸준히 다니실 생각을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1일 (음 4월 15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 **48년생**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도전하세요. **60년생** 인생사 욕심낸들 무슨 소용인가. **72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큰 것이 흠입니다. **84년생** 지금 귀하를 도울 자는 없습니다.

소 — **49년생**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61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73년생** 검소의 미덕이 상책입니다. **85년생**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다툼은 금물입니다.

호랑이 — **50년생** 주위와 협동하세요. **62년생** 시기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74년생**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 있습니다. **86년생** 안일한 행동은 삼가세요.

토끼 — **51년생** 주색을 조심할 때 입니다. **63년생** 고집부리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75년생** 마음이 답답하니 위태롭습니다. **87년생**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은 이루겠습니다.

용 — **52년생** 자식중에 효자가 나겠구나. **64년생** 서로의 의견이 달라 마찰이 있습니다. **76년생** 조금만 인내하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88년생** 자존심에 얽매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뱀 — **53년생**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65년생** 상대도 나만큼 알고 있습니다. **77년생**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습니다. **89년생**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말 — **54년생** 재는 크고 이롭고 관은 성공합니다. **66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입니다. **78년생**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90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양 — **55년생** 앞 뒤를 잘 가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67년생** 소송은 불길합니다. **79년생** 주위 상황을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세요. **91년생** 파트너와 불화가 있겠습니다.

원숭이 — **56년생**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겠습니다. **68년생** 서쪽이 길방입니다. **80년생** 마음을 바르게 쓰면 큰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산야에 봄이 돌아오니 그 빛이 새롭습니다.

닭 — **57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세요. **69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유의하세요. **81년생** 윗 사람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세요. **93년생** 발전일로에 들어 섰습니다.

개 — **58년생**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70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82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94년생** 특이한 지혜와 재치로 만인의 사랑을 받게됩니다.

돼지 — **59년생** 상대의 변덕이 심해 앞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71년생** 흑백을 가리기는 힘듭니다. **83년생**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세요. **95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세요.

초저금리 시대, 빚 내서 집 사야 할까



윤경용의 So what

최근 한국은행이 '5월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4~5일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모든 권역에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세난과 저금리에 동요한 30대 이하 젊은 층이 주택 거래에 나서는 게 영향을 미쳤다.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30~40대가 감당하기엔 벅찬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도심 주요 지역에서 전셋집을 찾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

이에 반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LTV와 DTI 규제도 완화됐다. 전세난에 시달리면서도 자금력이 약한 30~40대 젊은 무주택 세대주도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쉬워진 것이다.

과연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할까?

대출을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무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에 나서도 좋다고 본다. 어차피 전세를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계약이 만료되는 2년마다 집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주거안정성 측면에서 약간의 주거비용 증가는 감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택시장에 대한 장기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럴 때는 가격 하락 변동성이 적은 상품 위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심의 소형아파트가 적합하다.

대출은 금리, 상환 방식, 대출 자격, 대출 가능금액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된다.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대출상품을 살펴보는 게 좋다. 대출 자격이나 조건은 다소 까다롭지만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오랜 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원금을 같이 갚는 대출이 대부분이므로 자금 여력을 확인해야 한다.

당장 원금을 갚을 여유는 없지만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거치식 대출 중 금리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총 이자금액은 비거치 대출보다 많지만 설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함으로써 초기 부담은 줄일 수 있다.

금리 상승은 대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오를 일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미국발 변수로 내년 이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3년 내 금리가 지금보다 오르더라도 이자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부국장 겸 경제부장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잔치 왜?



기자 수첩

김 성 현
<생활유통부 기자>

관세청이 1일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서류 제출을 마감함으로써 기업들의 면세점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관세청은 서울에 허가하기로 한 시내면세점 3곳 중 2곳을 대기업에게 주겠다고 밝혔다.(중견·중소기업 1곳)

하지만 최근의 면세점 입찰 전쟁을 보고 있으면 대기업들만의 잔치같다. 현재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 합작법인·신세계그룹·호텔롯데·현대백화점·SK네트웍스·한화갤러리아·이랜드 등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 기업은 면세점 관련 단독 법인 설립, 주변 관광 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협력 등 각종 발표를 하루가 멀다 하며 여론몰이 중이다. 면세점 시장이 쇠퇴해 가는 오프라인 시장의 '황금알'로 대기업들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면세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보며 정부 기관인 관세청이 왜 대기업에 시내 면세점 2곳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부추기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

면세점이란 정부가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해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다. 즉 정부가 조세 수입을 포기하는 만큼 면세점 수익은 공익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그동안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공익 목적과 무관하게 수입 명품 판매에만 열을 올려 왔다. 지난해 8조3000억원을 기록한 시장의 과실도 모두 대기업들이 가져 갔다. 이번에 대기업이 가져가는 서울 시내면세점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골목 상권까지 주무르며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익이 창출되는 곳이면 어디든 문어발처럼 발을 뻗으며 영세 상인들을 고사시키는 대기업들에게 조세 수입까지 포기해 가며 면세점을 내줄 이유가 있을까.

지난 31일 면세점 입찰에 도전한 동대문제일평화상가 상인들은 정부가 제시하지 못한 '상생'형 면세점을 스스로 제시해 인상적이다.

관세청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시내 면세점 2곳을 줬다면 진정한 상생형 면세점의 입찰 기회가 2배로 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성현기자 minus@

대림산업 'e편한세상' 잇단 완판행진
차별화된 설계로 브랜드가치 더하다

소비자 119

밖에서 가스·조명 등 제어
층간소음 저감설계 돋보여

대림산업이 올 들어 선보인 'e편한세상'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차별화된 상품에 브랜드 가치가 더해지면서 거침없는 마감행진을 벌이는 중이다.

3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경기도 용인 풍덕천동에 공급한 'e편한세상 수지'는 1순위에서 평균 8.3대 1로 마감됐다. 이후 정당계약일 3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용인시가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성적이다.

이어 서울 중랑구 묵1구역을 재건축한 'e편한세상 화랑대'가 1순위서 3.5대 1을 나타냈다.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서창'은 순위 내 마감 후 5일 만에 100% 계약을 완료했다.

가장 최근 서울 서대문구 아현뉴타운 1-3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신촌' 역시 501가구 모집에 서울 1순위자만 5354명이 몰리며 평균 10.6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전용면적 59㎡ 17가구에는 1919명이 접수해 112.88대 1의 청약률을 보였다.

대림산업은 이 같은 인기에 대해 'e편한세상'이라는 선호도 높은 브랜드에 차별화된 설계가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올 들어 공급된 아파트에는 집밖에서 모바일 기기로 가스·조명 등을 제어하는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 '대시(DASH)',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한 스위치·온도조절기·콘센트·월패드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을 끌었다.

여기에 냉기 유입이나 결로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열 설계, 주방과 거실에 일반 아파트보다 2배가량 두꺼운 60㎜ 바닥 차음재를 적용한 층간소음 저감설계 등도 돋보였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브랜드 아파트 시대를 열었던 'e편한세상'의 브랜드에 76년의 시공 노하우를 보유한 대림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이 더해져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인사

■ 기획재정부
△실장급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파견 김용진 △국장급 ▷사회예산심의관 구윤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 임기근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파견 홍두선 △과장급 ▷총사업비관리과장 강길성 ▷민간투자정책과장 이상영 ▷국제경제과장 이상목

■ 코트라
△상임이사 보임 ▷정상외교경제활용지원센터장(정보통상지원본부장 겸임) 윤원석 △간부 보임 ▷경제외교지원실장 이종건 ▷상시비즈니스지원실장 권중헌 ▷경제외교기획팀장(경제외교사업팀장 겸임) 이금하 ▷경제외교성과확산팀장 빈준화 ▷마케팅지원팀장 김형일 ▷투자지원팀장 강형곤 △해외 무역관 파견 ▷암만무역관장(다마스커스무역관장 겸임) 노철 ▷알제무역관장 조기창 ▷모스크바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운영팀장 김민환 ▷청두무역관장 최광수 ▷런던무역관장 김윤태 ▷텔아비브무역관장 오태영 ▷타이베이무역관장 박한진 ▷마이애미무역관장 김명수 ▷뭄바이무역관장 이동원 ▷키예프무역관장 유승호 ▷베오그라드무역관 개설요원 박찬길 ▷다레살람무역관장 전우형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부관장 강병수 ▷산토도밍고무역관장 배상범 ▷싱가포르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운영팀장 이기석 ▷리마무역관장 김철희 ▷샤먼무역관장 김태현 ▷창사무역관장 김주철 ▷울란바토르무역관장 한창윤 ▷광저우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운영팀장 김준규 ▷브라티슬라바무역관 개설요원 최규철 ▷아바나무역관장 정덕래

■ 중소기업청
△과장 전보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정기환 ▷중견기업정책국 기업혁신지원과장 정병락

■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승진임용 ▷획득기획국장 김일동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 손성은

■ 국민연금공단
△본부실장 전보 ▷고객지원실장 이수형 ▷노후준비지원추진단장 이문연 △1급 지사장 전보 ▷동대문중랑지사장 채희욱 ▷부천지사장 천득출 ▷강동하남지사장 강신복 ▷남동연수지사장 우제광 △본부 부장 전보 ▷인재경영실 이혜선 ▷홍보실 최희정 ▷연금급여실 고숙진 ▷정보화본부 이상우 ▷정보시스템실 박성업 ▷장애심사센터 송미령 △2급 지사장 전보 ▷동작지사장 안경숙 ▷세종지사장 이종회 ▷서귀포지사장 신영일 ▷부산사상지사장 이재용 ▷통영지사장 설복훈 △2급 부장 전보 ▷종로중구지사 김인철 ▷의정부지사 송경학 ▷구리남양주지사 임병희 류정영 ▷구로금천지사 김승규 ▷서인천지사 이재복 ▷부평계양지사 추태경 ▷대전지역본부 이재석 ▷청주지사 경명호 ▷대구지역본부 유광곤 ▷부산지역본부 허기도 ▷창원지사 이상선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승진 ▷정책연구실장 홍성준 ▷인력운영실장 이동우 △전보 ▷총무복지실장 송욱진

■ 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류형철 ▷소통협력팀장 김병태 ▷교통환경실장 남광현 ▷ SOC환경실장 권태범 ▷상생협력연구실장 송재일 ▷미래전략팀장 오동욱 ▷공공투자센터 소장 박성덕

■ 파이낸셜뉴스
▷소비자경제연구소장 이성구

기사제보=02)721-9861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경제혁신 3개년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귀를 기울입니다
길이 좋아집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행복 100約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 갑니다

2015년 고속도로 개통 및 착공 현황

구 분	구간	연장(km)	개통(착공)시기
신규개통	충주~제천	23.9	'15.6
	울산~포항	42.1	'15.12
확장개통	냉정~부산	13	'15.6
	담양~성산	142.8	'15.12
	영동~옥천	7.1	'15.12
	안산~일직	10.0	'15.12
	양재~기흥	7.5	'15.12

구 분	구간	연장(km)	개통(착공)시기
착 공	광주순환	10.3	'15(하)
	아산~천안	20.1	'15(하)
	남이~천안	34.6	'15(하)
	창녕~밀양	27.4	'16년
	포항~영덕	30.9	'16년

고속도로 건설은 계속됩니다!

ex 한국도로공사